

이화동창

2017 이화인의 밤 / 이화가족 성탄예배 /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8

10

이화동창

2017년 겨울 제149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48×64cm)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이명실(영문 78,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임은실(국문 86)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02 2017 이화인의 밤

1,200여 명 동창의 우애와 화합의 자리

06 행운 선물 목록

‘이화인의 밤’ 행사를 위해 행운선물을 기증해 주신 분

07 2017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힘써 준 분들께 감사”

08 2017 이화가족 성탄예배

아기 천사들의 깜찍한 축하공연, 믿음의 공동체 이화를 경험하다

10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Lighting the Future’ 가 삶 속에 가득하길!

15 축하합니다

신인령 동창 외

17 총동창회 소식

대바자회 평가 및 ‘이화인의 밤’ 준비사항 점검 외

19 선교부 소식

선교부 가을수련회 외

21 모교 소식

2017 은퇴 교직원 초청 오찬 개최 외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녀 화가 이경순·조기주 동창

28 이화의 이곳저곳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32 나의 스승 나의 제자

조계숙 신산업융합대 국제사무학과 명예교수와 제자들

36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청년 농업 경영자로 주목받는 김가영 동창

40 선교지에서 온 편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42 모교사용설명서

동창회관 대관 서비스

43 대학(원) 소식

음악대학 외

45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53 지회 소식

뉴욕 지회 외

61 동창 근황

김양식 동창 외

68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69 평생회비·연회비 납부자 명단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7년 겨울 149호

발행 2018년 1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7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2017 이화인의 밤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 저력과 단결을 보여 주는 1,200여 명 동창의 우애와 화합의 자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17 이화인의 밤’ 행사가 2017년 12월 4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화인의 밤’은 21만 이화동창들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동창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고, 모교 사랑의 마음을 보여 주는 연중 가장 큰 총동창회의 행사이다. 1부 만남과 2부 만찬, 3부 작은 음악회, 4부 행운 잔치 순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전 모교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장상·이배용·신인령·김선욱 전 모교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장의순 전 총동창회 고문, 윤순희·김순영·조종남 총동창회 고문, 우복희 이화학당 이

사, 심봉석 모교 의무부총장, 정준순·김광옥 총동창회 부회장, 올해 처음 참석한 남성 동창인 이화·한경ACE Academy 졸업자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이화동창이 참석하였다.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에 오은주 동창 선정

1부 행사는 한숙영(제약 79) 총동창회 문화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단상에 오른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은 이화동창으로서의 자긍심, 저력과 단결, 우애와 화합을 보여 주는 중요한 행사”라고 말한 뒤, “이 자리를 통해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내년에는 더욱 빛나는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1. 원쪽부터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전 모교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 모교는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김혜숙 총장을 선임하여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우리에게는 이화의 DNA가 있음을 잊지 말고, 매일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2016년에 ‘이화인의 밤’ 행사를 치르지 못하면서 제12회 수상자로 선정된 오은주(영문 74) 동창은 ‘2017 이화인의 밤’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오은주 동창은 철거민이 모여 사는 아주촌에서 24년째 빈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생계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들의 복지와 자립을 돋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다섯 개

의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들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있는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의 참 실현자이다(관련기사는 《이화동창》145호 참조).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이대목동병원 건강검진권을 오은주 동창에게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오은주 동창은 “현지 청년들이 2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랜드마더’라 부르는 제게 전해주며 축하해 주었다”며 “필리핀에서 선교한 지 24년째인 지금 비로소 현지인들과 하나가 됨을 느끼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은주 동창은 “현지에서 풍토병으로 아들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었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화동창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2. 김영주 총동창회장 3.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오은주(왼쪽) 동창에게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2

3





1. 원쪽부터 장상 전 모교 총장, 이배용 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김선욱 전 총장



2.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김혜숙 총장에게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전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총동창회가 제정, 해마다 ‘이화인의 봄’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을 실천한 동창에게 수여하고 있다.

모교발전기금 1억 전달

한편 이 자리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1년간 이화동창들이 모은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김혜숙 모교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혜숙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대학은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규모 감소, 학령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인재 양성 등 많은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

다”며 “모교 역시 대학의 사회적 기능, 이화의 지향점, 여자대학이 키워낼 인재상 등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어 “이러한 때에 학교발전기금은 큰 격려가 된다”고 덧붙인 뒤, 지난 1년 간 모교가 이룬 과학 분야, 학교 평가, 인프라, 학생 복지 분야 등에서의 성과를 동창들에게 설명하였다. 김혜숙 총장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단과대학의 분권화,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화 본연의 가치가 제도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화가 꿈꾸는 미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성 4중창단 카이로의 작은 음악회

2부 만찬은 허현미(체육 89) 총동창회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건배사를 선창한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은 “이화는 131년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시에, 어느 시대건 이화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며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모교 발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화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이화여”라고 건배사를 선창하였다.

만찬 후 3부 순서로 남성 4중창단 카이로(KYLO)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카이로는 재치 있는 입담과 풍부한 감성을 담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1. 원쪽부터 장의순 전 총동창회 고문, 윤순희 고문, 김순영 고문, 조종남 고문

〈Can't Help Falling In Love〉 〈내일로 가는 계단〉 〈우정의 노래〉 〈시간은 쓴살 같아서〉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등의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의 염원을 담아 교가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행운 선물을 안고 2018년을 기약하며 작별을 나누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행운 선물 잔치로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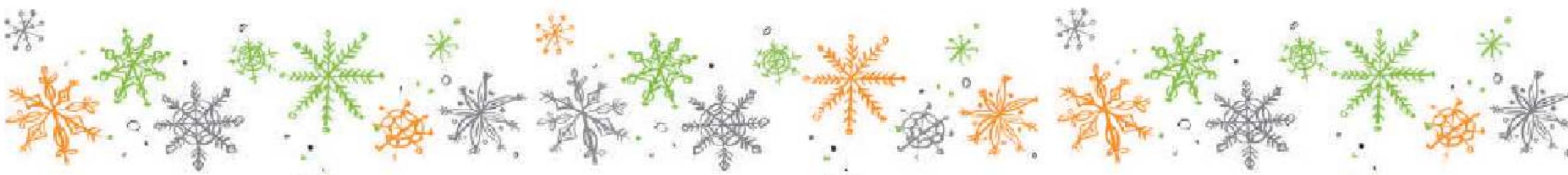
행사의 마지막 4부는 행운 잔치 및 선물 증정 시간이었다.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전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윤순희·김순영·조종남 고문, 심봉석 모교 의무부총장, 이나경(서양 77) 동창, 김혜숙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등이 기증한 행운 선물이 차례로 추첨될 때마다 장내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선물 목록은 6쪽 참조). 3시간 동안 진행된 이화인의 밤 행사는 참석자 모두 이화 발



2. 남성 4중창단 '카이로'의 특별공연
3. 자리를 가득 메운 이화동창



3



‘이화인의 밤’ 행사를 위해 행운선물을 기증해 주신 분

1	정의숙 전 이사장	브로치 1점	26	권오향 자연대학 동창회장	된장, 고추장 세트 3점
2	윤후정 전 명예총장	브로치 1점	27	이승희 음악대학 동창회 부회장	30만 원 강남 미 피부과 상품권 1매
3	장명수 이사장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28	봉지희 조형대학 동창회장	E:FEEL 10만 원 패션상품권 3매
4	김혜숙 총장	다이슨 수퍼소닉 헤어드라이기 1점	29	박경실 체육대학 동창회장	한경희 생활가전 제품 10점
5	김영주 총동창회장	삼성전자 200만 원 상품권 1매	30	신경희 사범대학 동창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6	심봉석 의무부총장	이대목동병원 패트검진권 1매	31	이명숙 법과대학 동창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7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삼성 냉장고 1대	32	이남희 의과대학 동창회장	고급 와인 2점
8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LG 노트북 1대	33	조혜숙 간호대학 동창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9	조종남 총동창회 고문	동양매직 에어오븐 1대	34	이미애 약학대학 동창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10	정준순 총동창회 부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22점	35	최인순 생활환경대학 동창회장	대한민국 명장 임종휴 나전옻칠 보석함 1점
11	김광옥 총동창회 부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22점	36	곽은아 대학원 동창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12	남상택 총동창회 감사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1점	37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MCM 핸드백 1점
13	이영란 총동창회 감사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김 선물세트 10점	38	불문과 동창회	한일관 10만 원 식사권 10매
14	이명실 총동창회 총무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39	이진민 국문과 동창	isi 불가리안로즈 인텐시브 마스크팩 세트 1,200점
15	안영호 총동창회 서기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0	안혜초 영문과 동창	안혜초 시집 『시 쓰는 일』 50권
16	한미경 총동창회 서기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1	김혜정 물리학과 동창	북유럽B&F 오틀리/핀크리스피 선물세트 1,200점
17	정영출 총동창회 회계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2	이나경 서양화과 동창	아라가야 한복 상품권 1매
18	한숙영 총동창회 문화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3	신난식 성악과 동창	30만 원 강남 미 피부과 상품권 1매
19	이혜원 총동창회 사업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4	육명희 경영학과 동창	크라운 해태제과 선물세트 30점
20	임산희 총동창회 재정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5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까스텔바자 티셔츠 5점
21	이영희 총동창회 홍보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6	대우제약	이스키아 화장품세트 10점, 마스크팩 20점
22	허현미 총동창회 회우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7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건강검진권 3매
23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8	인터컨티넨탈호텔	인터컨티넨탈 2인 뷔페식사권 5매, 숙박권(조식포함) 1매
24	황정인 총동창회 정보통신부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49	(주)샘표식품	유기농 참기름, 연두 청양초 각 1,200점
25	이정화 인문대학 동창회장	남여주 작가 작품 스카프 7점	50	총동창회	수첩, 달력, 다용도 가방 각 1,200점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힘써준 분들께 감사”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12시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후원이사들을 위해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감사의 자리로, 윤순희·김순영·조종남 총동창회 고문과 김영주 총동창회장, 후원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연단에 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원이사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은 재학생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다”고 감사를 표한 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50명이 총동창회에 보낸 감사편지를 일부 대독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즐긴 뒤 팝송과 민요를 국악 연주로 새롭게 해석한 국악 트리오(가야금 : 유은주·한음 08, 해금 : 강예원·한음 05, 타악 : 오수진·한음 15)의 연주를 들었으며, 소개 시간을 통해 각계에서 활약 중인 동창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2017년 ‘올해의 이화인’ 우숙영(피아노 87) 동창이 ‘2017년 올해의 이화인 특정기부금’을 전달하였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후원이사들 덕분에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을 돋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후원이사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더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2017 이화가족 성탄예배

아기 천사들의 깜찍한 축하공연 믿음의 공동체, 이화를 경험하다

총동창회와 모교 교목실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2017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혜숙 모교 총장, 장윤재 모교 교목실장을 비롯해 동창, 교직원, 재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축하하는 거룩하고 기쁜 예배를 드렸다.

장윤재 교목실장의 예배 인도에 따라 찬송가 <그 어린 주 예수>를 부른 후에 모든 이화의 가족이 드리는 기도로 동창, 직원, 재학생, 유치원생이 돌아가며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어 특별연주로 이화핸드벨 단원 10명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과 <Mixolydian Entrada>를 연주해 은은한 감동을 자아냈다.

다음 순서로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성경 누가복음 2장 25–33절 말씀을 봉독하고, 박미자(성악 86) 모교 교수와 음대합창단(지휘: 박신화 모교 음대 교수)이 이화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 모교 음대 교수)의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로 성가 <오 거룩한 밤>을 찬양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장윤재 교목실장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다림이며, 이 약속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이자 마음속에 소망과 사랑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이화의 가족들에게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



1. 모교 음대 합창단과 이화국악관현악단 2. 이대부속유치원생의 축하공연 3. 장명수 이사장, 김혜숙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왼쪽부터) 4. 박미자 교수

해 빈 의자를 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 암울한 세상에 빛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를 위로하는 자비의 구원자,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 보기를 기원한다”며 말씀을 맺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이화 출신 선교사를 돋기 위한 현금 순서가 이어졌다. 현금이 모아지는 동안 박양미(제약 82)·신경희(특교 84)·오주엽(의학 81)·오은주(영문 74) 동창의 선교사역이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봉헌이 끝난 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많은 복을 받은 이화인들이 이제 그 복을 나눠 주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방 땅을 향했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작은 현금이 땅끝 열악한 곳까지 잘 전달되어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드렸다. 이어 모교 음대합창단이 흥겨운 멜로디의 <징글벨>을 부르고, 이화국악관현악단이 웅장한 곡조의 <축연무>를 연주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혜숙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이화를 경험하는 날,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된다”며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공연 순서로 이화의 가장 어린 가족인 11명의 이대부속유치원생이 등장해 깜찍한 울동과 함께 <고요한 밤>, <창밖을 보라>, <실버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의 캐럴 메들리를 선사했다. 참석한 이화가족 모두 함께 손뼉을 치고 따라 부르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다. “이화동산에 하늘에서 아기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장윤재 교목실장의 애정어린 찬사와 함께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저 들 밖에 한밤중에>를 찬송한 뒤 장윤재 교목실장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총동창회는 ‘성탄빵’ 2,200개를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장 편집위원) / 사진·모교 홍보팀 제공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뉴욕에서 열린 북미주 동창들의 축제 'Lighting the Future'가 삶 속에 가득하길!

2017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7년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약 310명의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Lighting the Future'라는 가치 아래 뉴욕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북미주지회연합회(고문 김영채(영문 59·신시내티), 이정열(사생 61·시애틀), 강영자(기독 64·북가주), 최성남(약학 70·뉴욕), 이사장 김명옥(경영 75·휴스턴), 회장 박영숙(경영 86·뉴욕))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북미주 이화동창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인정하는 연례행사로, 해마다 장소를 바꿔 북미주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같은 기간 제47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도 개최되어 행사장 안팎에서는 두 차례의 만찬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특강 및 관광, 주일예배 등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뉴욕 지회(이사장 유덕향·약학 71, 고문 이향원·의학 51, 장혜원·약학 50, 회장 박영숙, 부회장 겸 준비위원장 강혜경·영문 83, 총무 류은주·약학 91)를 비롯, 남가주(LA), 덴버, 보스턴, 볼티모어, 북가주(샌프란시스코), 북텍사스,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신시내티, 애틀랜타, 워싱턴DC, 클리블랜드, 토론토, 휴스턴 등 북미주 각지에서 온 지회 동창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김혜숙 모교 총장,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및 재단이사, 조태열 주 유엔대사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과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정통성 재확인, 고문의 임기에 대한 토론

10월 26일(목) 오후 8시부터 45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가 2층 몽

클레어 룸에서 열렸다. 김명옥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정열 동창과 고문 최성남 동창, 뉴욕 지회 이사장 유덕향 동창이 각각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연혁과 운영 원칙, 이사진 구성, 장학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고 2009년 덴버 총회 때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였으며, 북미에서 ‘Ewha’ 상표 등록과 관련된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북미주지회연합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정통성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김정진(의학 72·클리블랜드) 동창이 국제재단의 해외동창기금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참석한 이사들은 고문의 임기, 감사 선출, 지회연합회 발전에 대한 여러 안건 등을 토의하였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110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일(토) 오전 8시 볼룸C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박영숙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김영채 고문의 기도에 이어 교가 제창을 한 뒤 각 지회의 사업보고 순으로 이어져, 각 지회마다 1년간의 활동과 사업을 보고하였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입은 휴스턴(회장 정미선·수교 85) 지회 동창들이 다수 참석하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김민정(생미 90·휴스턴) 동창의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2016 결산보고, 2017 예산보고를 한 뒤 이사회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토의, 인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정형(약학 63·시애틀) 고문의 사임이 인준되었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고문직에 대해서는 3명의 고문이 연임하되 1년에 1명씩 사임하여 연합회의 연속성을 가지기로 했고, 새 고문으로 이정열 동창을 추대하였다. 또한 2018년 총회를 토론토에서, 2019년 총회는 시애틀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화국제재단 부회장 홍경주(약학 62) 동창은 국제재단의 장학금 지급, 해외동창기금 모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화국제재단은 모교 후원을 목적으로 미국 내 설립된 모금기관으로, 1947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후 이화를 후원해 오던 ‘Ewha Womans University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 와 1967년에 김활란



1. 김영주 총동창회장
2. 김혜숙 총장
3. Marc S. Mullinax
국제재단 이사장
4. 박영숙 북미주지회연합회회장
5. 성정순 전 총동창회 고문
6. Jeannie Park
7. 조태열 주 유엔대사
8.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
9.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총회



선생이 설립한 ‘재미 이화 10년 발전사업후원회’가 합병되어 1970년에 발족된 기관이다. 설립 아래 국제재단은 도서, 연구설비, 실험기자재, 인적 교육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교의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비 및 장학금 등으로 1,1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교에 지원하였다. 홍경주 부회장은 2017 회계연도에 국제재단이 미화 100만 6,001달러를 모교에 지원하였음을 알리고, 동창회별 기금/장학기금 모금현황과 해외이화동창기금 현황, 글로리아 한 장학금과 아펜젤러추모장학기금을 안내하며 보다 많은 이화동창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양일간 성대한 만찬 통해 화합과 우의 다져

북미주 이화동창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만찬은 10월 27일(금), 28일(토) 양일간 열렸다.

10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총장님과의 만찬’은 190명의 이화동창 및 각계 귀빈이 참석하였다. 강혜경 동창의 사회로 열린 1부에서 박영숙 회장은 “1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뒤 “총회에 참석한 이화동창 모두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환영사를 하였다. 장지현(성 악 06·뉴욕) 동창의 축하음악에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와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이화에 내린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며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모교에는 소통의 문화가 정착되고 혁신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고 그 결과 김혜숙 총장이 선임되었다”고 소개한 뒤 “모교와 함께 총동창회는 이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영국 시인 브라우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The Best is Yet to Be)”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모교 발전의 염원을 담은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김혜숙 모교 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혜숙 총장은 “북미주 동창의 모교 사랑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이곳에 왔다”고 전한 뒤 “신임 총장으로서 분열, 상처, 고통을 씻고 하나의 이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화는 최초의 길을 만들어가는 대학이며,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디딤돌을 놓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2부는 한나리(체육 92·남가주) 동창의 사회로 시작되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지회별 텔런트 쇼로 이어졌다. 텔런트 쇼의 1등은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2등은 토론토 지회, 3등은 애틀랜타 지회가 차지했고, 시애틀·남가주(LA)·보스턴 지회에서도 화합과 단결, 아이디어와 재치를 뽐내는 장기자랑을 선보여 장내의 큰 박수를 받았다. 수상한 세 팀은 각각 미화 300달러, 200달러, 1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1. 뉴욕 지회 ‘이화의 사위’ 밴드의 축하공연
2. 2016년도 텔런트쇼 1등팀 애틀랜타 지회의 축하공연
3. 뉴욕 지회 ‘이화 뉴욕 보이스’의 특별공연



10월 28일(토) 오후 6시부터 리셉션과 함께 열린 만찬에는 310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류은주 동창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는 Andris Salter(미연합감리교회여성교회 부대표)의 기도에 이어 조태열 주 유엔대사의 축하 메시지,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김혜숙 총장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는 젊은 시절 한때를 보낸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 주고, 경제적 독립의 바탕이 된 곳,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화동창들과 인연을 토대로 내 삶의 한 축을 단단히 세운 곳”이라면서 “김애마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메이드 인 이화’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총동창회장은 “뉴욕은 규모나 활동 면에서 ‘대뉴욕지회’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곳”이라며 “뉴욕 지회에서 정한 슬로건 ‘Lighting The Future’가 우리 이화동창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혜숙 모교 총장은 “우리는 모두 ‘이화’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가 더 기억되는 이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국제재단 Marc S. Mullinax 이사장이 김혜숙 총장에게 국제재단에서 모금한 학교발전후원기금을 전달하였고, 국제재단에서 오랜 기간 봉직해 온 장화인(심리 69·뉴욕) 부회장에게 Mullinax 이사장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지난 22년간 《Time》, 《Entertainment Weekly》, 《InStyle》 및 《People》에서 일한 저널리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계 미국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위한 비영리 단체의 리더로 일하는 Jeannie Park(현 주·약학 55 동창의 딸) 씨는 기조연설자로 등장하여 아시아계 여성으로서의 삶, 이화를 자랑스러워했던 엄마의 삶을 소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1부의 마무리는 ‘이화 뉴욕 보이스(장지현·성악 06, 이주현·성악 13, 정주리·성악 13, 송은별·성악 14, 김근아·성악 15, 장재영·성악 16, 이주리·성악 16)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만찬에 이어 한나리 동창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되어 장화인 이화국제재단 부회장의 기도, 성정순 전 총동창회 고문(체육 49·애틀랜타)의 축배사, ‘이화 뉴욕 사위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모교 대외협력

1. 국제재단 이사장이 모교 김혜숙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 북미주지회연합회에서는 태풍 하비로 피해를 입은 휴스턴 지회에 격려 성금을 전달했다
3. 장화인 국제재단 부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1. 뉴욕 지회의 <백조의 호수> 특별 공연
 2. 2등상을 받은 토론토 지회
 3. 1등상을 받은 북미주지회연합회
 4. 남가주 지회
 5. 3등상을 받은 애틀랜타 지회
 6. 보스턴 지회
 7. 시애틀 지회
 8. 다음 개최지 토론토 지회에 총회
 깃발을 넘겨주었다

처장 김훈순(커미부 78) 교수가 이화뉴스를 전했다. 김훈순 교수는 이화발전기금 사업보고에 이어 모교 후원기금을 안내하고 이화 해피펀드에 대해 소개하며 큰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어 2016년도 텔런트 쇼 우승팀 애틀랜타 지회의 축하공연과 북미주지회연합회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다음 개최지인 토론토(회장 대리 최인숙·영교 74)에 개최지 깃발을 넘겨주었다. 토론토 부회장 최인숙 동창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자연이 살아 있는 도시 토론토에서 열리는 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만찬이 끝난 후 동창들은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안부 인사를 나누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기간 각종 특강 및 관광도 동창들의 인기를 끌었다. 10월 27일(금)에는 권혜경(정외 94) 동창의 ‘감정조절 세미나’와 서진희(기독 99) 동창의 ‘요가 세미나’, 10월 28일(토)에는 김용정 박사의 ‘척추 건강 세미나’, 최성은(식영 91) 동창의 ‘건강한 식품 선택 세미나’가 각각 열렸다. 또한 동창들은 맨해튼 시내 관광(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센트럴파크, 원월드 타워, 하이라인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10월 29일(일) 총동창회에서 제공한 아침식사를 즐긴 뒤 일요예배(인도자 남후남·약학 62)에서 강혜경 목사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화에서 받은 이화정신, 예수정신의 수혜를 받은 이화동창은 이제 그것을 외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였다. ‘총장님과의 대화’를 끝으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마친 동창들은 내년 토론토에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신인령(법학 67) 동창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임명

신인령 모교 전 총장이 2017년 10월 10일(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위촉되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 자문기구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선옥(법학 75) 동창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선임

김선옥 모교 전 총장이 2017년 2월 1일(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자문위원들은 특위의 개헌 논의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혜숙(영문 76) 동창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촉

김혜숙 모교 총장이 2017년 10월 19일(목)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정책위는 외부 전문가 1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달 회의에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이미경(영문 73) 동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임명

이미경 동창이 2017년 11월 28일(화)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동창은 제15~19대 국회의원으로 20년의 의정생활과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유병국(간호 75) 동창

유재라 봉사상 수상

2017년 10월 19일(목) ‘유재라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유재라 봉사상은 유한재단이 199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간호, 교육, 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본을 보여온 여성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소연(문정 85) 동창

국가기록원장 임명

첫 ‘개방형 공모’ 국가기록원장에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이소연 동창이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7년 11월 29일(수)부터 3년간이다. 이 동창은 2016년부터 한국기록학회 회장을 맡아왔다.



김선아(제약 95) 동창

일본 PEH 총괄 대표 선임

한국화이자 부사장 김선아 동창이 일본 화이자에센셜헬스(PEH) 사업부 사장으로 발령받았다. 한국인 여성 임원이 일본 주요 사업부의 대표로 임명된 첫 사례다. 2017년 5월 PEH 아태 지역 마케팅 총괄에 임명된 이후 7개월 만에 성공적인 아태지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오지영(불문 17) 동창

2017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오지영 동창이 ‘2017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1년간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모교 경력개발센터는 국가고시준비반, 공기업 EDU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화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 5명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에 모교 동창 5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모교는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4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5년부터 3년 연속 4위를 기록하게 됐다. 합격한 동창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은영(법학 00), 김민정(법학 06), 정유정(법학 13), 원소연(법학 14), 변정연(법학 16).

2017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

2017년도 5급 행정고시에 모교 재학생 5명과 동창 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합격한 동창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지혜(영문 11), 지다슬(초교 13), 최다솜(정외 17).

대바자회 평가 및 ‘이화인의 밤’ 준비사항 점검

2017년도 10월 정기임원회가 2017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참석 25명, 위임 11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249장을 부른 후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7년 10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여, 한미경(물리 88)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 및 정영출(경영 72) 회계의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대학보고에 이어진 ‘대바자회’ 평가 시간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바자회는 동창들의 친목 도모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였고, 수익창출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각 과 부스는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대학별 추첨으로 배정했는데 당일 불만을 제기하는 과가 있어 즉석에서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최인순(의직 79) 생활환경대학 회장은 준비 과정에서 짐을 내리기 위한 정차 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모든 과가 비슷한 시간에 준비하기 때문인데, 물건이 많은 과는 좀 더 일찍 와서 물건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신경희(수교 77) 사범대학 회장은 더 많은 재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과 게시판에도 포스터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방

문객들의 휴식 코너를 음식 부스 근처에 좀 더 넓게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017년 12월 4일(월)에 열리는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안내하고, 소음악회는 남성 4중창단인 ‘카이로’의 공연이 4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일 참석자들의 선물로는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가방과 동창수첩, 달력 외에도 isoi 기증 화장품, 김혜정(물리 87) 동창이 기증한 커리음료 세트, (주)샘표에서 기증한 참기름과 연두 세트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정준순·김광옥 부회장이 행운선물로 각 100만 원씩 기증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12월 7일(목) 오후 3시에 열리는 이화가족 성탄예배에서 걷는 현금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150여 명의 이화동창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현금송 대신 ‘아름다운 이화인’상을 수상한 동창 선교사 네 명의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모교 채플에 50명의 동창석이 있음을 홍보하고 관심 있는 동창들의 참석을 독려하였다.

한편 2018년 대강당 대관 건을 논의하고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날짜를 2018년 5월 26일(토)

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5월 12일

(토)로 결정하였다.

이화가족 성탄예배 논의

2017년도 11월 정기임원회가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참석 30명, 위임 10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친송가 276장을 부른 후,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7년 11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여, 한미경 서기가 10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정영출 회계가 10월 회계보고를 하여 각각 통과되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행사’ 행운선물 기증을 하는 동창은 11월 24일(금)까지 동창회 사무실로 물품을 전달하거나 물품 대신 30만원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하였다. 대학별 티켓 판매 대금은 11월 24일(금)까지 완납해줄 것과, 모든 임원들은 행사 당일 오후 2시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 5층 연회장 로비에 모여 당일 참석자들에게 줄 기념품 배분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12월 7일(목)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서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있음을 지

난 회의에 이어 다시 공지하였으며, 각 대학 회장들은 각 과에서 5명씩 현금위원들을 모집하여 11월 30일(목)까지 총동창회 사무실로 명단을 제출해 줄 것과, 현금위원들은 12월 7일(목) 2시 30분까지 대강당 로비에 모여 현금바구니를 들고 동창석의 지정 좌석에 착석한 뒤 봉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성탄현금은 해외에 파송된 모교 출신 선교사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성탄예배를 뜻깊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 번 공지하였다.

또한 해마다 총동창회에서 이화가족 성탄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성탄떡’은 교목실의 요청에 따라 ‘성탄빵’으로 품목을 바꾸기로 하였고, 대신 2,200개의 빵에 성탄 스티커를 부착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다. 임원들은 당일 2시까지 대강당에 모여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모교와 서대문구청 봉사의 일환으로 김치 만들기 연례 봉사 활동을 하고 왔음을 보고하였다.

소통하는 총동창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12월 행사 마무리

12월 총동창회 정기임원회가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 지하 1층 리얼토에서 열렸다. 이명실(영문 78)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어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한미경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 정영출 회계의 회계보고와 각 부

및 대학보고가 이어졌다. 안건토의로는 ‘이화인의 밤’ 및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영란(체육 76) 감사는 지난 12월 4일(월) 개최된 ‘이화인의 밤’ 행사 시간이 예정보다 초과된 점을 언급했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사전에 충분히 고

지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시간이 초과되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기증품과 행운선물을 제공해 준 고문 및 임원 그리고 동창들께 감사드린다”며 “합심해서 행사를 준비한 덕분에 행사도 잘 치르고 참석자들에게 행운선물을 많이 지급할 수 있었다”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한편 정준순 부회장은 12월 7일(목)에 있었던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평가하며 “성탄예배라는 특성상 단상에 앉은 귀빈들이 정면을 마주보고 앉은 자리가 불편해 보였다”며 자리 배치를 단상 중앙에서 옆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임원들은 다음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는 학생과 동창 참여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 현금위원도 예상보다 숫자

가 줄었다”며 당일 현금위원으로 참석했지만 소임을 맡지 못한 동창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넸고 현금위원으로 참여한 동창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기타 안건으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교수, 직원, 동창, 학생으로 구성된 모교 대학평의회의 2018년도 동창 할당 인원이 2명으로 확정되었음을 공지하고, 당연직인 총동창회장 외에 동창 봉인 1명을 총장이 선임하는데 이를 위해 총동창회에서는 2명의 임원을 후보자로 올린다고 설명하며 후보 추천을 의뢰받았다.

이날 총동창회는 이화동창들의 소통과 친목 향상,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총동창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12월 정기임원회를 끝으로 2017년 공식 일정을 마감하였다.

선교부 소식

선교부 가을수련회

선교부는 2017년 9월 19일(화) 다락방전도협회 1층에서 2017 가을 선교부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는 장윤재 교목실장이 로마서 4장 18절의 본문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다. 장 교목실장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도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희망이란 선택이자 의지, 결단이며, 기독교적인 희망이란 죽음을 거스르는 부활의 희망,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방문한 캄보디아의 김유선(신학대학원 04) 선교사는 교장을 맡고 있는 이화스렁학교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화스렁학교는 이화가 130여

년 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모교 교수 몇 명이 기도하며 캄보디아에 세운 학교로서, 내년에 중고교 개교를 앞두고 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7팀으로 나누어서 대강당, 중강당, 애다 기도실, 대학원 기숙사, 대학교회, 학생문화관 기도실, 종합과학관, 신공학관 기도실, 이화역사관과 새로 개관한 E-하우스 기도실, 오후기국제관 기도실을 방문하여 이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이 날은 이기연 대표, 선교동아리 대표들, 탈북학생 등 학생들과 동창회원들이 함께 기도처를 순례하며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더욱 뜻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제38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12월 5일(화) 다락방전도협회 3층 예배실에서 제38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를 드렸다. 이대 다락방전도협회는 1960년 4월 19일 필리핀의 막사이사 이상 수상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로, 기도와 전도를 위해 지어져 57년간 그 사명을 이어오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선교지원팀 여학생미래캠프 3명, 선교장학생 2명, 생명평화선교팀 2명, 에셀팀 4명, JOY 1명, 예수전도단 1명, Music For You 3명, 노래선교단 2명 총 19명 학생이 참가한 환송예배에서 장정은 교목은 행 20:31-35 본문,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김영주 총동창회장(교육 71)이 격려의 말을, 2017 ‘이화인의 삶’을 받은 필리핀의 오은주(영문 74) 선교사가 권면의 말을 해주었다. 또한 Music For You에서 특주를, 노래선교단의 연태웅 형제가 현금송을 불렀다. 예배 후 1층 애찬실에서 총동창회에서 제공해 준 애찬을 나누며 식사교제를 하고, 단기선교 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애찬

후 안식년을 마치고 출국을 앞둔 노선영(성악 02) 선교사가 근황을 나누었고, 동창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특별히 작년 겨울 단기선교 환송예배에 참석했던 선교장학생 김덕영 (사회과교육 17) 동창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후배들을 위해 후원을 보내며 격려하는 뜻 깊은 일이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겨울 단기선교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화에서 기도와 전도가 계속 이어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계속 되기를 기도한다.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평생회비, 연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8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0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8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1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혹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김영주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소식

2017 은퇴 교직원 초청 오찬 개최

모교는 2017년 12월 7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2017 은퇴 교직원 초청 오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퇴 교직원 80여 명을 비롯해 김혜숙 총장, 정문종 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2011년 시작한 은퇴 교직원 초청 행사는 은퇴 교직원들을 초청하여 지난 1년간의 이화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이화를 위해 헌신했던 은퇴 교직원들과 학교 간의 유대관계를 돋독히 하고자 기획되었다.

김혜숙 총장은 “오래 전 이화에서 처음 만난 많은 교직원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시간의 길이와 깊이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며 “은퇴 선생

님들의 지혜와 격려, 관심을 바탕으로 진정 한 지성 공동체의 모습이 이화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은퇴 선생님들이 언제든 이화를 방문하여 책을 읽

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학교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는 △교육환경 구축 △국제화 △대학 분권화 등 학교가 실행할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이화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이화 캠퍼스를 찾은 은퇴 교직원들을 위해 특별강연도 마련됐다. 송동훈 문명탐험가는 ‘배움, 상상, 영혼이 있는 여행-그랜드투어’를 주제로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더 넓은 세계와 배움에 대해 전하며 이화를 떠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은퇴 교직원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각종 국가고시 우수성과

모교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한국 여성 전문인력의 산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먼저 모교 오지영(불문 17) 동창이 ‘2017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9월 25일(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3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1,159명이 응시해 1차(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2차(전공평가, 논문형), 3차(면접) 시험을 거쳐 43명이 최종합격했다. 오지영 동창은 “힘든 고시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가족들과 스터디 친구들, 학교 고시반에 감사하다”며 “추후 외무사무관으로서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11월 7일(화) 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가운데 모교 출신 5명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9.1%, 여성 합격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모교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에 이어 성균관대와 함께 국내 대학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모교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4위를 차지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임을 입증했다.

2017년도 5급 행정고시에서는 모교 출신 8명이 최종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사혁신처가 11월 8일(수) 발표한 2017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275명 중 모교 졸업생 및 재학생이 일반행정(전국) 3명, 일반행정(지역직) 2명, 교육행정 2명, 국제통상 1명 등 총 8명이 포함됐다. 모교는 올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247명의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제54회 변리사시험에서 모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10명이 최종합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8일(수) 제54회 변리사시험에 총 1,209명이 응시해 210명(17.3%)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여성 합격자는 총 74명(35.2%)이다. 모교는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들 중 4명이 재학 중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이와 같이 모교는 경력개발센터 국가고시준비반 등을 운영하며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이화인을 대상으로 핵심 특강을 비롯해 모의고사 및 기출해설, 교수지도 모의 면접과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이화인의 공직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고시 여풍을 주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모교 5개 전공, ‘2017 중앙일보 학과평가’ 우수성적 거둬

모교 5개 전공이 ‘2017 중앙일보 학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문·사회계열 중 행정학과가 최상위권에 올랐으며, 이공계열 중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화학·나노과학전공, 환경공학전

공, 통계학과가 상 등급에 선정됐다.

인문·사회계 학과평가는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70곳 중 경제학·행정학·호텔경영/관광학·역사학·철학 등 5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

및 교육 여건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모교 행정학과가 최상 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학과는 지난 30년 동안 공공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여러 연구와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공직 및 공공기관 진출 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 체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소그룹을 결성해 맞춤형 취업 준비를 돋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학기 교수와 학생 모두가 작업현장을 방문해 진로 탐색을 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상담 프로그램 강화, 학생 경력 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공계 학과평가는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70곳 중 건축공학·화학·전자공학·환경공학·통계학 등 5개 학과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모교의 건축 도시시스템공학전공, 화학·나노과학전공, 환경공학전공, 통계학과가 상 등급에 올랐다.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적인 교육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건축 공학 분야에서 국내외 널리 주목받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건축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SCI 논문, 특히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화학·나노과학전공은 3년 연속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된 윤주영 교수 등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 사업단에 선정돼 우수

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에 선정되어 2017년 6월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그 밖에도 창의사업단 2개, 국가지정연구실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 1인당 평균 2억 7,000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방학마다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과학 및 공학은 물론 환경정책법규·환경영향평가·환경경영·환경언론정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지원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기관 및 산업체 현장 실습 위주의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공학 실무 중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글로벌 인턴십, 해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환경 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학과는 우수 대학원생 육성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현장 실습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금융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필요한 통계적 이론과 방법들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취업 전담 교수진들이 학생들과의 개별 진로 상담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Data Scientist 트랙을 개설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녀 화가 이경순·조기주 동창

“옛날에는 엄마의 힘이었지만, 지금은 딸의 힘이에요”



‘연속, 그러나 불연속’(2017년 11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공아트스페이스)으로 네 번째 모녀 전을 끝낸 어머니 이경순(미술 50) 동창과 딸 조기주(서양 79) 동창을 만났다. 이 동창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에 약속이 연기되었던 터라 만나자마자 어머니 이 동창의 안부를 묻자 조 동창은 다행스러움이 물어나는 말투로 대답했다.

“어릴 때는 생김새며 성격이 엄마랑 많이 다르

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나이 먹으면서 제가 엄마랑 닮은 구석이 많다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사실 뇌종양 수술 후 이번이 두 번째로 쓰러지신 건데, 처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알았어요. 만날 엄마랑 나는 참 많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고, 엄마는 나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엄마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1세대 국내파 여성화가로서의 자부심

어머니 이 동창은 1940년대에 대학에서 미술 정규교육을 받은 1세대 국내파 화가다. 당시 미술계는 일본 유학파와 남성들이 장악하던 시절이었으나, 모교의 미술대학 개설은 여성의 미술계 진출을 이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

“우리 엄마는 똘똘이예요”라는 딸 조 동창의 농담처럼, 이 동창은 학창 시절의 일들을 또렷이 기억했다. 2학년 때, 지금은 북한 땅이 된 선죽교로 멀지게 차려입고 수학여행을 다녀온 얘기며, 얼마 안 되는 동기들과 어울려 은사인 김인승·심형구 화백에게 재미나게 수업을 들었던 얘기를 또박또박한 말투로 들려주었다.

1962년 모교 미술대학원 졸업 후 덕성여중 미술 교사로 부임한 이 동창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름방학 때는 학교 미술실에서 100호 크기의 그림을 꼭 두 점씩 그려 국전에 출품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우직하게 작품에 몰두하던 시절이었다. 그 후 모교에 시간강사로 출강도 했다. 꾸준히 전시회도 열었다. 늘 바쁘게 사는 선생, 화가, 아내, 엄마였다.

그런 탓일까. 조 동창이 철이 들 무렵부터 둘은

모녀지간이라기보다는 자매지간 같은 사이가 되었다. 서로 다른 작품세계를 추구하지만 같은 작업실을 쓰는 동료이자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후배 사이 같은.

덕성여중 교사로 근무하던 1963년 이경순 동창은 <소녀상>으로 국전 특선에 당선되었다. 그때가 첫 특선이었다. 사실 이경순 동창은 1953년 제2회 국선 출품을 시작으로 1976년까지 총 16회 입선과 4차례 특선의 경력을 지닌 실력파다. 국내 여성 서양화가로는 유일하게 국전 추천작가(1977~1981년)와 초대작가(1982년)를 지낸 그의 경력이 그것을 증명한다.

“2015년 미수(88세)를 기념해 열었던 세 번째 모녀전 때까지도 엄마는 봇을 놓지 않으셨어요.”

65년간 끊이지 않고 샘솟는 창작 욕구, 현대적 흐름을 잊지 않으려는 실험 정신, 이러한 재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우직하게 그림에 몰두한 짐념은 이 동창을 아는 사람으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의 성품이다.

미술가가 아닌 작곡가가 되고 싶었던 당찬 딸
어릴 때부터 자의식과 분리의식이 강했던 조 동창은 자신이 어머니처럼 미술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랑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조기주여야 했어요.” 남자 형제 사이에 낀 고명딸로 태어났지만 아무지고 당찬 딸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방면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림은 물론이고 발레, 수학도 좋아했고요. 특히 피아노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꾸준히 배웠는데 청음, 시창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 읊김, 화성 등 음악이론도 좋아해서 작곡가가 되어야겠



1962년 이경순 동창의 대학원 졸업식 날 모교 미술대학 앞에서 포즈를 취한 가족들. 가운데 여자아이가 당시 일곱 살이던 조기주 동창이고, 조 동창의 외조부모님이 함께했다

다고 생각했어요.”

음대를 가고 싶다는 딸을 말린 건 어머니 이 동창이었다. 유명한 교수들에게 사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그냥 공부로 일반 대학을 가라고 딸을 설득한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엄마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찌감치 미술을 제쳐놓았던 게 아닐까.’ 하지만 너무 늦은 고민이었다. 담임 선생님도 어머니도 고3 때 무슨 미술을 시작하느냐며 반대했다.

아마도 미술을 해야 할 운명이었는지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다. 재수와 동시에 미술을 시작했다. 기초적인 드로잉부터 하나하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

1975년 처음으로 각 대학이 계열별 모집을 시행했고 그때 필기시험도 함께 치르며 모교 예체능 계열 수석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다방면의 재능이 그때 빛을 발했던 것.

한편 어머니 이 동창은 그림에 대한 열정과 네 차례 국전 특선이라는 쟁쟁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네 번째 모녀전

교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 교수 사회는 S대 출신 남자 교수들이 주도했고 이 동창은 그 벽을 깨지 못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린 조 동창의 눈에도 어떤 불합리함이 있어 보였다. 그 때부터 조 동창은 교수가 되고야 말겠다고 결심 했다.

조 동창은 대학교 2학년 때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어머니의 수업을 들었다. 그때 재미있었던 일화를 묻는 질문에 그는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제가 수석 입학자인 데다 엄마는 시간강사였으니 교수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아주 불편하고 힘들었지요.”

조 동창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회화 전공, 미술사 부전공으로 석사를 마친 뒤 1989년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자신의 못다 한 꿈을 딸이 이루었으니 이 동창의 기쁨과 보람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조 동창은 그때 어머니라는 존재의 긍정적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어렵게 사회생활하는 걸 봐 왔기 때문에 여자로서 잘되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열 배는 더 노력하고 더 잘나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엄마에게서 찾아낸 긍정적인 영향이었죠.”

‘연속, 그러나 불연속’ 인 둘의 작품세계

모녀전을 보고 난 첫 느낌은 두 사람의 작품세계가 너무나도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 작품에 굳이 작가 이름을 따로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인물화와 정물화에 집중하는 이 동창의 작품은 여성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라면,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기는 딸 조 동창의 비구상 작품은 도시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였다.

딸을 모델로 한 〈기주 연작〉과 〈소녀상〉에서 보여지듯 이 동창은 전기에는 주로 유화로 정통적인 인물화를, 중기에는 화려한 〈장미 연작〉 같은 정물화를 그렸고, 1990년 이후엔 아크릴 물감으로 변화를 시도해 창가의 꽃병을 소재로 한 그림들 속에 창을 경계로 실내와 실외가 조화롭게 공존하

고 소통하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냈다.

조동창은 어머니의 그림 중 1963년 여덟 살 때부터 1975년 스무 살 때까지의 자신을 그린 여섯 편의 <기주 연작>을 꼽으며 “본인이 화가이면서 자신의 초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역사상 저밖에 없을 거예요”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딸 조동창의 그림은 어떨까? 무엇보다 그의 작품에는 ‘시멘트 벽’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등장한다. 벽을 뜯어낸 효과를 낸 시멘트 위에 말라비틀어진 물감, 쓰다 남은 구리 조각 등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얻음으로써 ‘벼려짐의 재창조’라는 콘셉트로 작품을 창조해가고 있다. 또한 그의 대표작인 캔버스 32개짜리 초대형 <Triple I>에는 수많은 점들이 제각기 크기와 톤을 달리해서 배치되어 있다. 흑연과 유화를 바르고 지우기를 반복해 창조된 이 원들은 생성과 소멸의 거듭됨이라는 순환을 상징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작품세계를 펼치는 두 모녀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로 같았다. 기회가 닿는다면 앞으로 꾸준히 모녀전을 여는 것.

“혼자 하기보다는 딸과 함께하는 게 서로 힘이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딸의 힘을 얻는 거지요. 옛날에는 엄마의 힘이었지만, 지금은 딸의 힘이에요”라는 이 동창의 말에 조동창이 이렇게 덧붙인다. “첫 번째 모녀전(1995년, 청담동 63갤러리) 때 엄마의 지도교수였던 김인승 교수님(2001년 작고)이 ‘여태까지는 조기주가 이경순의 딸로 불렸다면, 여기 와서 작품들을 보니 이제는 이경순을 조기주 엄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늘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딸에게 영향을 받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이경순 동창

1950년 모교 미술대학 미술과 졸업
1962년 모교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62~1970년 덕성여자중학교 미술교사
1963, 1964, 1974, 1975년 4회 국전 특선
1953~1976년 16회 국전 입선
1971~1985년 모교 미대 및 동덕여대 미대 출강
1975~1977년 미대 동창회 녹미회 회장

조기주 동창

1979년 모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82년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89년~현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2004년 『이것도 예술이야?』(현암사) 출간
2012~2015년 단국대학교 예술대학장
2016년 『이유 있는 미술시간』(노스보스) 출간
2017년 미술대전 서양화 비구상 부문 심사위원

어머니를 보면 딸은 한 가지 바람을 갖게 됐다. 어머니의 컬렉션이 생기는 것.

“우직하게 열심히 작업하셨는데 아쉽게도 엄마 작품이 컬렉션 된 곳이 없어요. 그만 그리셨지 대외적으로 활동한 분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작품이 한국 근대미술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엄마의 작품을 소장하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교 박물관에 기증할 마음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세대 국내파 여성화가라는 어머니의 자부심을 어떻게 오래 기억되게 할까? 이것이 이제 딸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었다.

인터뷰 내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두 모녀를 바라보며 모범적인 예술의 대물림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흐뭇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아시아 페미니즘의 ‘발상지’이자 구심점

모교 본관 뒤편의 동쪽 언덕에는 숲속의 집처럼 아담한 이층집이 있다. 1936년 세워진 이 석조건물의 이름은 ‘영학관(英學館)’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영문과 졸업반 학생들이 서양예절과 생활영어 등을 익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영어를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건물 이름도 그래서 생겨났다. 그 후 한때는 고시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로도 쓰였다. 지금 이곳의 주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오랜 연륜만큼이나 이화인의 다양한 꿈과 사연이 깃들었을 이 집에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자라고 있을까?

“아시아 여성의 문제는 아시아 여성들의 경험과 손으로”

아시아여성학센터(이하 ‘센터’ 병기)는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의 산하 기구로 탄생했다. 1977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학 교육·연구의 산실이 되어온 한국 여성연구소가 1994년 한국여성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듬해에 아시아여성학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여성학이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연구대상이나 분야, 개념, 분석도구 등이 서구의 맥락에 치우친 점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들려온 반응 중 하나는 “한국 여성학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아시아 여성학이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 또한 한국의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성장해 온 한국 여성주의 역사를 간과한 채, 여성학을 단지 서구에서 도입한 수입 학문으로 폄하하려는 ‘국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당시의 초대 소장 장필화(영문 74) 교수는 문제를 제기했다.¹⁾

아시아여성학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 여성 학술대회’를 열고, 국제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이하 ‘아시아여성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영학관

학저널' 혹은 AJWS》를 창간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의식의 성장’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여성학자들 간의 조직화 사업과 지식 생산 작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길도 없는 미지의 벌판에,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난 뒤 돌아보면 그곳에 길이 생기고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들이었다.

서구 중심의 여성학 연구에 도전장을 내다

센터는 아시아 여성 연대를 위한 실천의 첫 행보로, 한국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1997년부터 3년간 ‘아시아 여성학: 이론과 실천에 관한 지식교류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행위 주체로서의 아시아 여성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센터는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과 한국 등 아시아 8개국의 여성학자들과 함께 여성학과 관련한 수차례의 국제 워크숍과 대회, 연구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지식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들의 지위와 여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이 개발되고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여성학 교재를 개발, 2005년에 아시아 8개국 여성학 교과서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다.

센터에서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인 《아시아여성학저널(AJWS)》은 1997년 12월, 우리나라 사회과학 여성학 종합 학술지 최초로 국제 학술정보 분석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면서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했다. 오늘날 한국의 연구재단과 대학들이 연구자 성과 정량평가로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국제 저널 등재 문제가 부상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AJWS》가 어떻게 SSCI에 등재될 수 있었는지를 문의해 오는 전화가 꽤 있었다고 한다.²⁾

1999년, 지금의 영학관으로 옮겨온 센터는 세계 여성학계에 존재감을 알릴 큰 행사를 준비한다. 2005년의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를 주관하게 된 것이다. 1981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여성학대회는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전 세계 여성의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여성학 학술대회로,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개최지가 되었다. 한국여성학회와 이화여대가 공동주최하고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관한 이 대회는 전 세계 79개국에서 모인 참가자 2,271명



《아시아여성학저널》



아시아 8개국 여성학자들의 공동작업 끝에 탄생한 아시아 8개국 여성학 교과서



2005년 서울 이화 캠퍼스에서 열린 제9차 세계 여성학대회

과 사무국 스태프 및 자원활동가 397명, 전시 및 참관자 500여 명이 함께한, 세계여성학대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였으며, 지금도 각국에서 대회 성공의 교본(教本)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대회가 더 뜻깊은 것은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인도, 일본, 중국,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에서만 1,500명이 넘는 여성학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진 여성학자와 운동가들은 왕성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적 문제와 해결책’을 쓴아냈고, 언론에서는

이 대회가 ‘아시아 여성들이 서구 중심의 여성학 연구에 도전장을 낸 대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³⁾

2005년 세계여성학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2007년 ‘아시아여성학회’ 창립의 견인차가 되었으니, 아시아여성학센터는 명실공히 아시아 페미니즘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변화를 만드는 초국적 여성운동,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GEP)

센터에서는 아시아 여성학의 발전과 여성주의적 연대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8개국을 순회하며 매년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ASEAN)의 지원 아래 한–아세안 협력사업(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 KACP)을 벌이고 있다. 한국 및 아시아 11개국의 차세대 여성학 연구자들이 인적 교류를 하도록 주선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아시아 지역 여성학 연구와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한–아세안 협력사업(KACP)이 차세대 여성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은 차세대 여성운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1년 모교는 여성교육을 통한 ‘나눔과 섬김’의 실현, 그리고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GEP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 여성학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해 온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이 사업을 맡게 되었다.

2012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2주간 진행되는 EGEP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및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회당 20~25명을 선발하는데 놀랍게도 첫 회부터 30여 개 나라에서 2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현재 12기 EGEP까지 누적 지원자 수는 2,607명이고 졸업생은 255명(45개국)이다.

참가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환경, 성소수자 인권, 빈곤, 개발, 농업, 이주노

동, 종교, 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네팔에서 온 수니타는 월경이나 출산 시기에 있는 여성들을 불결하다고 여겨 축사에 격리시키는 관습을 철폐하는 운동을 협력 NGO 및 지역 여성들과 연대해 펼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마니자는 여학생 교육 금지 정책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여자 아이들만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비밀교습소’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했다. 우간다의 여성활동가 리디아는 여학생용 화장실 건축을 지원하는 한편 강수 저장탱크를 건설하고 이를 식수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여학생용 화장실 부족과 식수 마련을 위한 동원 등이 우간다 여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주요 요인이다.

무엇이 이들을 EGEP로 끌어들이는 걸까? 지난 1970년대 이래 한국 여성학의 제도화를 이끌어온 이화의 역사와 그간의 결과물들 자체가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과거 서구에서 보여준 이른바 ‘제3 세계’에 대한 수직적 시혜(施惠) 의식과 달리, 우리는 한 발 앞서 길을 열어온 당사자로서 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수평적 동지를 지향하기에, ‘연대’도 ‘변화’도 접근 가능한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아시아를 탐구하라

1995년 설립 이래 아시아 여성학의 지식 생산과 여성학자 교류, 아시아 지역 여성활동가의 교육과 상호 연대를 주도해온 아시아여성학센터의 23년 궤적은 아시아와 세계에 이화를 알리며 달려온 시간들이기도 하다. 현재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은실(영문 80) 교수(여성학과)는 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인 만큼, 아시아는 우리의 새로운 준거(準據)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시아여성학센터는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여성학자, 여성운동가, NGO들과 연대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이화 그리고 아시아여성학센터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 표시한 주1~3의 내용 출처는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장필화 외 지음) 중 「아시아의 여성학, 우정과 환대의 공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노지은 지음)



2015년 7월, 8기 EGEP 참가자들이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에 참석한 모습

‘기본’으로 ‘대단’ 해지는 일꾼들의 열정적 멘토 “무엇이든 함께하고 언제나 의견을 나누죠”



조계숙 명예교수

1950년 서울 출생. 1969년 모교 국제사무학과(당시 비서학과) 2기로 입학, 1973년 졸업하였다. 1992년 성균관 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후 1993년 모교 국제사무학과(당시 비서학과)에 교수로 취임해 2014년 퇴임했다. 모교 재직 시 국제사무학과장, 전문직업개발 원장, 언어교육원장, 정보과학대학원장, 여성지도력개발센터원장, 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1992년 설립된 한국비서학회 제5대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2000년 사단법인 한국비서협회를 출범시켰다. 저서로는 『현대비서학』, 『비서실무론』, 『비서학원론』 등이 있고, 다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백지연(국제사무 94) 모교 국제사무학과 교수, 학과장
박선아(국제사무 95) 한국관광대 국제비서학과 조교수,
NCS지원센터장
안지영(국제사무 11) (주)에이플러스서울 인사팀 과장

조계숙 __ 지금까지 내 생활은 모든 게 학교와 연관되어 있어. 함께 일하고 의논하고 무엇이든 함께한 거지,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학생이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너희는 어찌나?

백지연 __ 제가 학부 때 선생님이 처음 오셨는데, 젊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라서 놀랐지요. 학부 때는 선생님 수업을 한두 개밖에 듣지 못했어요. 선생님을 더 가까이 뵈 건 제가 교직에 발을 들이고 나서인데, 이제 원로가 된 선생님께서 저를 동료로서 가장 잘 대해 주셨어요. 믿고 존중해 주셔서 참 든든했어요. 일하고 의논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셨던 것 같아요.

안지영 __ 전 학부로 입학한 뒤 방황을 좀 했어요. 좌표가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선배가 없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비서 되려고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채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게 저에게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 되었어요. 선생님께 ‘AP(Administrative Professional, 행정관리전문가)’의 개념을 전해 듣고, 감명받았어요.

조계숙 __ 내가 재직 때 13년 반 동안 보직을 맡아 보았어. 학과장에, 언어교육원장, 정보과학대학원장, 국제회의센터 소장, 재무처장 등을 비롯해 총

동창회 부회장까지. 일이라는 것에는 기본이란 게 있잖니. 그런 역량을 갖춘 우리 과 인력은 어디에 서든 환영이라 안 놓아 주더라고. 그래서 학생에겐 미안한 입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밥은 사잖아?(일동 환히 웃음)

박선아__ 예나 지금이나 정말 밥을 잘 사주세요. 영어연극반 지도교수셨잖아요. 3학년 때 연극반이 존속조차 힘들었는데, 선생님 밥이 큰 힘이 되었어요. 4학년이었던 백 선배는, 진로 선택에 집중할 시기라 성가실 텐데도 1주일에 두 차례씩 꼬박꼬박 성실하게 나와 주었고요.

백지연__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학생과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죠. 저도 받은 게 많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이젠 저도 계산대 앞에 서려는 제자에게, “네가 나보다 많이 버니?” 하며 우스갯소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께 갚아본 적은 없네요.

조계숙__ 교수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면담이라잖아. 일일이 만나고, 과정에 늘 개입하고. 하지만 우리 과 교수는 오히려 그걸 우선으로 했어. 대학생을 유치원생처럼 대한다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잖니? 보통 사제지간을 넘어서 특별하게 친밀함을 나누는 분위기 같은 것이 있었지.

백지연__ 저도 한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졸업식을 마친 학생이 복도에서 선생님을 부르는데, “언니~”라고 해서요.

조계숙__ 자기들이 이제 졸업했다 이거지 뭐(일동 웃음). 학생, 후배들이 따라와 줘서 내가 고맙지.

나도 부모처럼 보살펴 주셨던 은사님들의 영향을 받았으니 내리사랑이지. 은퇴한 우리 과 선생님들은 학교에도 잘 오시잖아. 후배 길 열어 주어야 한다고 은퇴 후에 모교 강의도 맡지 않는 분들이 같이 식사하며 담소 즐기러는 오셔. 학생과 후배들, 은사님 사이에 늘 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과 교수 덕분에 다른 곳에 비해 자주 모이는 편이고.

박선아__ 선생님은 목소리나 어조도 그렇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뭐든 믿어져요.

조계숙__ 거짓말이거나 지어낸 건 없어요. 내가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 걸 열정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박선아__ 그런 열정에 반해서 선생님 수업은 정말 이지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어려 본 적도 없고요. 부전공을 고민할 때, 여기서 충실히 해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 첫 직장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대기업을 염두에 두었는데, 그보다는 할 일이 많은 곳을 권하셔서 그대로 따랐고요. 1년쯤 뒤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서 좌송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의논드렸을 땐, 제 의견을 존중한다며 밀어 주셨지요. 그 직장에서 제가 14년 반동안 기업 창업자를 모셨잖아요.

안지영__ 그 전설의 비서가 선배로군요.

박선아__ 전문 비서가 드물 때였어요. 있어도 나 이 든 남자들이었고, 정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종종 저를 따돌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요, ‘나는 어린 자, 여자가 아니다, 전문가이다. 그들이 전문가답지 못하다’라는 마인드로, 상처받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전문가’로서 사고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제 형편이 어려울 때였는데, 기운 빠져 있는 걸 본 선생님이 학자금을 주셨어요. 학과 공부를



왼쪽부터 박선아·백지연 동창, 조계숙 명예교수, 안지영 동창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발을 동동 구르니, 사적으로 근로 장학생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조계숙 __ 직업을 원하는 쪽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니는 동안만 좀 도와주면 4년 이후엔 다들 밥벌이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잘 커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이는 성적 장학금이 아니면 당당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빌려주는 쪽을 생각해 냈지. 이후에 원금만을 갚거나 ‘플러스 알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작은 과치고는 장학금이 많은 편이야. 그런 게 유대감을 더 돋독하게 만드는 면도 있지(국제사무학과에는 조계숙 교수가 기부한 기금으로 만든 ‘대여장학금’이 있다).

박선아 __ 선생님은 학생을 정말 잘 챙아해 주세요. 물질적으로도 챙겨 주시지만, 공부라든가 취업 같은 진로 방향을 잡아 주셨어요.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고요. 남편을 택할 때도 자기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이를 택하라 하셨지요. 현실에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

고 그런 삶과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과 졸업생은 경력 단절 이후로 십수 년 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지영 __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는 15년차 직장인인 선배의 자리에 4학년인 제가 인턴으로 투입됐어요. 외국계 제약회사였는데, 인수인계 직후 제가 일하기 편한 방식으로 파일이나 비품을 짹 바꾸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항상 주도적으로 일해라.” 그때 실장이셨던 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예요. 천둥별거승이의 좌충우돌을 예쁘게 봐주신 거죠. 당시 인사팀 과장님은 회사에 인턴십 제도를 만들면서, “지영이 출신학과에만 공고를 냈으면 좋겠다” 하셨지요.

백지연 __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인턴을 요청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장기로 인턴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워낙 바쁘거든요. 기업으로부터 구인 요청도 넘치고요. 우리 학생들 능력은 현장에서 잘 알지요.

안지영 __ 국내 굴지의 기업 창립자의 딸도 우리과에 입학했잖아요. CEO도 경력, 그 과정에서 쌓은

충실한 경험이 없으면 유능해지기 어렵다고 봐요.

조계숙 __ 1년 중 반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한 CEO는 국내 정보 흐름이 끊기는 어려움을 유능한 전문비서가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해. 그 때도 우리 과에 왔지. 전문 비서의 역량을 경험해본 이들은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 대기업을 봐, 그곳 CEO는 꼭 비서실을 거쳐서 된다고.

백지연 __ 한편에서는 AI(인공지능)시대에 비서가 없어질 직업 중의 하나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단언해요. “NO!”라고요. 인공지능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비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는 하겠죠. 컴퓨터처럼요. 그렇지만 업무에서 핵심은 ‘사람을 읽는’ 데 있죠. 휴먼 베이스로부터 얻어지는 태도는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조계숙 __ 흔히 무슨 일이나 꿈을 꿀 때 그 앞에 ‘큰 대(大)’자를 붙이고, ‘대단’해지는 걸 원하잖아. 한번은 교내에서 중고등 교원 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것을 보고 “뭐 저런 것까지 붙이냐”고 하길래, “그럼 누굴 기려야 하는가?”고 물었어. 사회나 학교에서는 성취한 사람 몇몇을 원해. 과정은 못 기다려 주고 말이야. 목표도 ‘남을 돋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돋게 하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자기 경험 속에서 커나가는 거야. 그런 게 자신도 남도 돋는 진짜 대단함 아닐까?

안지영 __ ‘볼수록 진국’이란 말이 못마땅하다며, “너희는 처음부터 진국이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겪는 시간이 다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역량’이 ‘진국’이 되는 바탕 같아요.

백지연 __ 1968년 법정대 비서학과로 출발해서 상

경대로, 2006년에는 경영대 국제사무학과로, 지금은 신산업융합대학으로 학부 소속과 과 명칭을 바꾸어왔지만, 과의 ‘기본’에 대한 지향은 변함없어요. 사회에서 원하는 변화를 찾아내고 각 분야의 산업 실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

조계숙 __ 학과명이 비서학과여서 한동안 오해받기도 했어. 너희는 비서가 최종 목표냐고. 우리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잖니. 무엇이 되느냐에 앞서 실무의 ‘기본’을 갖춘 인재. 기본 중의 기본이 ‘휴먼 베이스의 소통’인 건 말할 것도 없지.

백지연 __ 비즈니스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교과 과정도 유연하게 바꾸고 있어요. 학년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교과 내용을 업데이트하고요. 사회와 연계해 호흡하니 과에 활력이 넘쳐요. 재학생의 학업 만족도, 졸업생의 취업률, 기업의 만족도도 최고인 이유가 아닐까요? 지원 학생도 얼마나 많다고요.

서울 삼청동길의 한 갤러리 겸 카페에서 평일 오후 5시, 누군가는 출장길에 캐리어를 끌고, 누군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또 한 동창은 자청하여 참석한다 했다. ‘기본 역량’과 ‘전문가’ 마인드를 장착한 인재가 사명이고, 스스로 그러한 일꾼이자 서로 응원하는 동행자인 조계숙 명예교수와 제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일이 웬지 하고 싶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명랑한 기분이 차올랐다. 노래 잘하는 이가 그러하고, 춤 잘 추는 이가 춤출 때 내는 그런 신명 말이다.

진행 및 정리·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혼자 잘사는 것보다 함께 행복한 게 중요해요”



대학 2학년 농촌 봉사활동 당시 김가영 동창

때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 2학년이던 그는 여름방학에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농사일을 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그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이 일이 신기하고 좋았다.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는 것도 재미있었다.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니까 그분들의 삶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일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도시의 마트나 가게에서 사먹는 채소나 농산물을 결코 싼 가격이 아닌데, 이 간극은 무엇일까?’

시작은 단순했다. ‘이분들이 농사지은 것을 내가 직접 팔아 드리면 어떨까? 서울의 음식점이나 상점을 찾아다니며 판로를 뚫으면 보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할머니들에게 좋은 일이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들한테 용돈을 받을까?’

이 작은 생각의 씨앗이 흙날 어떻게 자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골 할머니들의 농작물 팔아 주다 농산물 유통회사 창업

시골 할머니들이 길러내고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생생농업유통’의 대표이자 산나물밥집 ‘소녀방앗간’ 이사인 김가영(사회 17) 동창. 농사짓고, 학교 다니고, 사업도 하느라 대학을 12년 만에 졸업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농사에 ‘꽂힌’ 김 동창은 부모님께 농사 일을 배워보겠다 말하고는 무작정 전라도 남원 지리산 자락의 마을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선뜻 휴경지를 내주는 사람이 없어 빈 땅에 남몰래 농사짓다가 들켜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했다. 그래도 열심인 게 가상했는지 나중에는 할머니 한 분이 텃밭을 내주며 농사를 허락했다.

농사와 학업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상추 농사가 끝나면 고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다른 일거리가 줄줄이 기다렸다. 그가 학교 다니느라 서울에 간 사이 동네 할머니들이 텃밭을 건사해 주면, 그는 할머니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서울에 내다 팔기로 했다. 농활 당시 동네 할머니들을 보면 떠올렸던 생각이 현실로 된 것이다.

시작은 상추로 했다. 농사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가격 널뛰기다. 상추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근당 도 맷값은 열 배 차이가 나오고, 여기에 날씨까지 악재로 겹치면 통제를 벗어난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위험요인이다. 김 동창은 일 년 내내 상추를 일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신 고정적으로 수급받을 곳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과 홍대 일대 식당을 찾아다니며 영업했고, 그렇게 빨품을 판 끝에 홍대 앞 삼겹살집을 첫 거래처로 뚫었다. 친구들과 만나 밥 먹는 자리에도 홍보전단지를 갖고 다니며 식당 주인에게 건네고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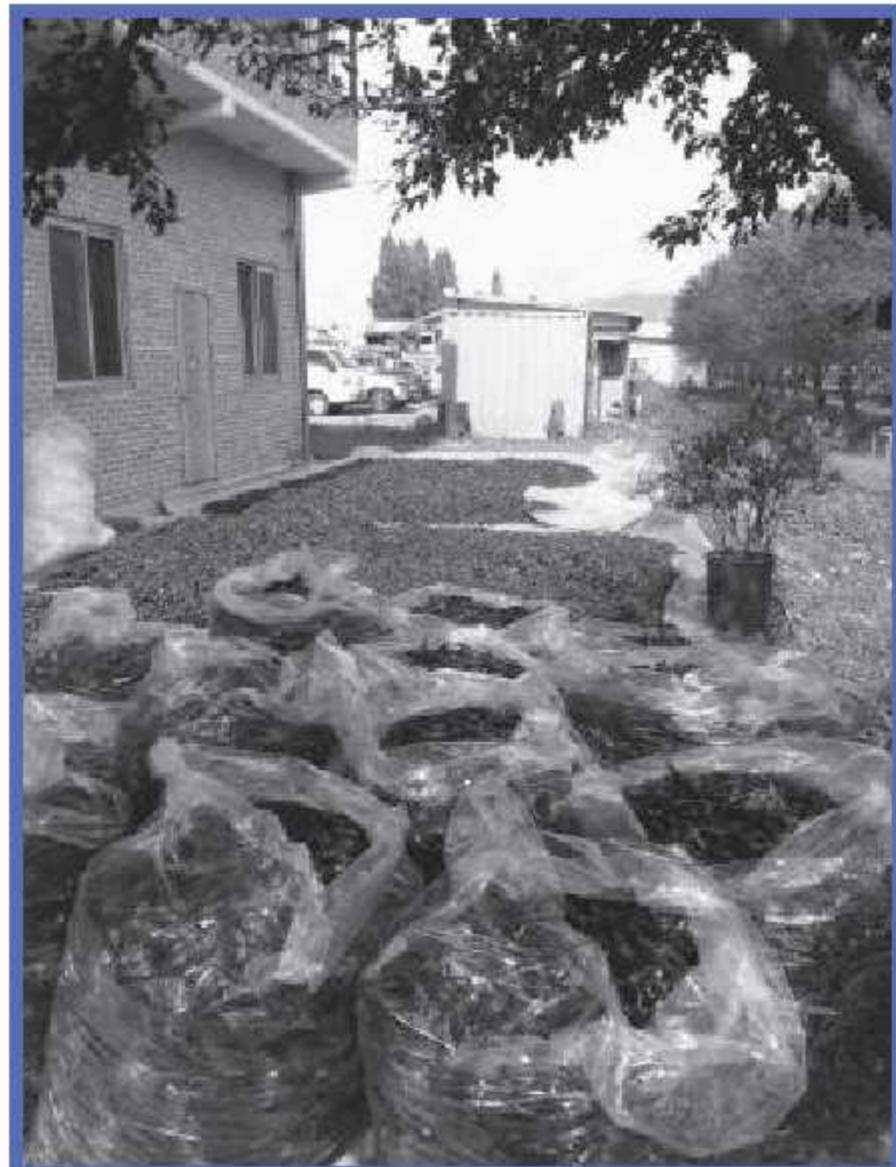
거래처가 늘고 취급 품목도 많아지면서 2008년에 ‘지리산친환경농산물유통’을 만들었다. 2012년에는 전국 각지의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 전주에서 지역문화 활동을 하던 대학동기 전제언(사회 11) 동창과 함께 ‘생생농업유통’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남원, 고창을 비롯해 전남 곡성, 경북 청송과 예천, 강원도 태백 등으로 활동 지역을 넓혀갔고, 현재 해마다 곡물 30톤, 고추 3톤, 된장 4톤, 산나물 3톤, 상추 360톤가량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농업 선진화와 농가 순익 증대, 농촌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로 김동창은 2014년 청년일가상(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일가 김용기 선생을 기리는 상)을 받았고, 한 언론에서는 그를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명의 리더’로 꼽기도 했다.

청정 지역 농산물로 도시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한 끼 밥상을

아무리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맞추려 해도 농산물 유통에는 많은 변수가 따른다. 잘 자라던 작물이 한파나 우박으로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기도 하고, 거래처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할머니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곡성 밭에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셀카



전남 곡성 고춧가루 가공공장 뒷마당

농사짓는 걸 지원하는 유통구조를 고심하다, 김 동창과 동료들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 할 수 있는 소비처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소녀방앗간’.

한식 밥집을 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이나 각종 조미료와 첨가물로 범벅된 음식을 주로 먹고 사는 도시인들에게 청정 지역의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소박한 한 끼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서울 친구들은 똑똑하고 세련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밥의 질은 엉망이에요.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밥상은 최고예요. 하나하나 건강한 재료들이지요. 왜 하나씩 비어서 살아야 하나? 그게 슬펐어요.”

그러므로 소녀방앗간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도시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좋은 밥 먹이고 싶은 시골 어르신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곳이며, 도시와 농촌, 젊은 세대와 앞선 세대가 음식을 통해 서로를 알고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할머니들은 수많은 풀들 사이에서 먹을 것들만 똑똑 끊어서 살고, 말리고, 대쳐 나물 찬을 내지요. 수십 해의 봄마다 보들보들 피어난 산나물을 뜯어 살을 지탱해 왔습니다...”

‘소녀방앗간’ 매장 한쪽에 붙어 있는 글이다. 메뉴판에 적힌 음식 설명도 눈길을 끈다. ‘월 산댁 뽕잎과 일포댁 쥐나물을 올려 진보정미소의 도정 30일 이내 햅쌀로 지은 밥에 방위순 할머니 간장과 장순분 어르신들끼로 짠들기름을 곁들여 낸 산나물밥.’

2014년 10월 서울숲 시작점으로 출발한 ‘소녀방앗간’은 3년 만에 이화여대점, 디큐브현대 백화점점, 제주올레여행자센터점 등 매장이 8곳으로 늘었다.

일터는 같이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실험의 공간

김 동창에게 원래부터 일머리가 좋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16세 때부터 돈을 벌었다고 했다. 공부를 잘하니 외고에 응시해 보라는 부모님 권유를 뿐리치고 특성화 고등학교인 선린 인터넷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재학 중에 프로그래밍 관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고등학생이 쉽게 일을 땔 수 있었을까? 경험이 없어 이쪽 분야의 시장 가격을 잘 모르니 제값 받고 일하지 못했고, 그래도 결과물이 아무지니 업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일꾼이었다.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을 거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장관상을 받고, 신기술 콘퍼런스 일반기업 대상과 여성창업경진대회 은상까지 받은 그는 대학은 정보기술 분야가 아닌 사회학으로 전공을 선택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아르바이트의 달인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치킨

집 서빙도 했다. 그는 업주가 좋아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맥주 하나를 따라 도 한 번에 황금비율을 맞추니 거품을 덜 어내는 ‘로스’가 전혀 없어, 남들이 한 통에서 10잔을 만들 때 그는 12잔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일머리는 ‘소녀방앗간’ 운영에서도 볼 수 있다. 소녀방앗간은 음식물 쓰레기가 잘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날 예상되는 음식 소요량의 80퍼센트만 미리 준비해두고, 나머지는 저녁시간에 맞춰 필요에 따라 즉석에서 준비한다. 한 번 더 일하면 될 뿐,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 생각만큼 힘들 것도 없다. 이렇게 직원들과 완충 지대를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 소녀방앗간에는 가정집 정도의 음식물만이 남는다.

스스로 ‘이대생 같지 않은 이대생’ 이었다고 말하는 김가영 동창. 그래도 학교 생활은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한다. 밖에서 온갖 풍파(?)를 겪다가도 학교에만 돌아오면 변함없는 모습으로 품어줘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사회학과에 멋진 교수님이 많다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큰 즐거움이었다.

“궁금한 것,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 선생님들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나도 저렇게 멋있고 균형감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컸지요. 덕분에 이효재 선생님 같은, 스승님의 스승님을 만나는 행운도 누렸어요. 이화는 닳고 싶고 기대고 싶은 어른이 많은 학교지요.”

혼자서 시작한 사업은 친구와 동료들을 하나둘 끌어들이면서 점점 자라나, 지금은 열 명의 동료들과 함께 꾸리고 있다. 생생농업유통과 소녀방앗간의 정규직원은 30여 명. 시간제 근무자 외에 이곳과 연계하여 작업하는 농촌 어르신도 70명에 이른다. 더 빠르게 회사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지만, 김 동창은 천천히 가고자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를 묻고 또 물으며 가려 한다. 그와 동료들이 일하는 이곳은 행복을 실험하는 일터공동체인 셈이다.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 건강한 나무가 앞으로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될지, 궁금해진다.



현재 8개 지점으로 늘어난 ‘소녀방앗간’의 출발점인 서울숲 시작점 ‘소녀방앗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아래 사진 오른쪽)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7-18)

2017년 10월 비즈니스 선교 콘퍼런스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했지만, 이때 찾아온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기업이니 망해도 주님의 책임’이라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믿음으로 경영을 하면 회사가 잘 되고 번창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었더라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소

망하며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방문사역 저희가 한국을 다녀온 사이에 Z&R 가정이 빌라 건물의 쪽방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건물 관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하리스’라고 하며, 건물 내 허드렛일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 일을 합니다). 문제는 집 주인이 이 가정에게 매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문객도 받지 말고 일주일 중 하루만 외출을 하라는 식으로요. 아마도 수단 난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방문팀이 이 집과 소통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저희 방문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어교실 나들이 제가 섬기는 여성 영어교실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누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학생들과 함께 현대식 쇼핑몰로 나들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곳은 난민으로서는 가보기 어려운 곳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현장 영어 실습도 하

면서 모두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즈니스 소식 지난 11월 요셉(요안나 동창의 남편) 사역자는 본사 출장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현지 업체 한 곳과 MOU(상호업무협약)를 맺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뤄졌습니다. 또한 출장팀은 이곳 현지를 둘러보면서 이 땅을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본사와 지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업이 요르단을 넘어 중동 땅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자 연장 최근 요르단에서 비자 받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교회를 통해 비자를 받던 분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제류해왔던 선교사님

의 비자가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역시 그동안 연락사무소를 통해 받아왔던 비자가 곧 만료됨에 따라 현재 1년 비자 연장을 신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직히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이야기 전공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요한이(22세)와 조이(20세) 모두 이번 학기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 주시고 또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셔서 힘든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이는 현재 다니는 학교 한인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예배와 교제로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 영육으로 재충전하고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글·요안나(철학 91)

♥ 기도해 주세요 ♥

1. 매 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요르단과 중동 땅에 복음으로 인한 참된 평화와 안정, 영적 부흥을 허락하소서.
3. 진행되는 사역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섬기는 영혼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소서.
(Z&R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고, H자매 태의 문이 열리도록)
4. 이번 MOU를 계기로 주님의 기업이 중동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비즈니스로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5. 주님의 뜻 가운데 1년 노동허가와 비자 연장이 이뤄지게 하소서. (12월 간신)
6. 양가 부모님을 영육 간 강건케 하시고, 방학을 맞는 두 자녀가 영육으로 재충전하고 다음 학기를 잘 준비케 하소서.



이번 동창 모임, 모교에서 어때요?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이다. 모임의 성격이나 취향에 부합하고 구성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임 장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면, 모교가 어떨까? 특히나 동창이라면 구성원 모두에게 친근하고 익숙해서 편안한 모교라는 선택에 공감하지 않을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각종 모임 장소와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총동창회 공간을 대여하고 있다. 대여 공간은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소회의실(804호)과 대회의실(806호) 두 곳,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연중 3월, 5월, 12월에는 동창회와 학과 모임의 공간으로 이용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30명 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804호)의 경우 대여료 10만 원(4시간 기준)이며, 10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806호)은 대여료 36만 원(4시간 기준)이다. 대회의실을 이용할 경우 냉난방비 별도이며, 빔 프로젝트(노트북은 별도 준비), 그랜드 피아노 사용시 각각 5만 원, 10만 원을 내야 한다. 저희 동창회와 모교 각 대학(원)·과(학부) 동창회에서 대회의실을 이용하면 5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에 음식(주류 제외)이 필요하다면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 등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도 재배치할 수 있다.

동창회관 대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이용 문의와 신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

ewhaalum@ewha.ac.kr)로 하면 된다.

모교 방문이 즐거워지는 팁 두 가지!

① 졸업생에게 발급되는 ‘이화가족카드’를 지참하면 중앙도서관 출입이 가능하고, 모교 ECC에 입점한 식당, 문구점, 안경점, 의류점 등 업체와 생활환경관(이화인의 나눔가게),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숍 등 모교 기관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화가족카드는 대외협력처에서 제공하는데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동창등록’을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각종 가방류, 카드 지갑, 스카프, 쟁반, 컵, 카드 세트, 책갈피 등 동창회 기념품을 8층 총동창회 사무실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택배 주문도 가능하며(택배 요금은 본인 부담), 품목당 100개 이상 구입 시(수첩, 달력은 제외) 10퍼센트 할인된다.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주차 및 주차 할인권

행사시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주차 할인권 신청 용지를 받아 교내 주차관리실에서 주차할인권(4시간 2,000원/종일 4,000원)을 구입하면 교내에 주차 가능하다.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음악대학

회장__임진(작곡 72)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참석

음악대학 동창회에서는 2017년 9월 21일(목) 바자회를 통해 6개 과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여 동창들의 결속을 다지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11월 4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 많은 임원진이 참석하여 음대 이화오케스트라의 연주에 힘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1월 25일(토) 오전 11시 가평 이화수목원에서는 김영의 선생님의 31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임진 회장을 비롯하여 음대 각 과의 회장들이 참석하였고, 추모예배 후에는 2018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대학오케스트라 축제에 참석한 음대 동창회 임원진

임원회의에서는 2018년 3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5월 뮤직 페스티벌의 합리적이고 풍성한 진행을 위한 여러 안건들을 수렴하였다.

앞으로 음대 동창회는 더욱 새롭고 알찬 계획으로 변화된 21세기에 발맞춰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웃과 동창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빛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조형예술대학

회장__봉지희(섬예 85)

녹미회 임원 운영회의 및 합창단 모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조형 예술대학 동창회 녹미회 임원 운영회의 및 합창단 모임이 있었다.

DDP 내 식당에 모인 녹미회 임원 및 합창단원들은 2018년 5월에 있을 합창제 준비와 합창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합창단 운영 방향에 대해 구상하였다. 이날 신임 회원 소개도 있었다.

DDP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패션 축제가 한창인 DDP에서 패션디자이너 루비나의 아카이브 전



임원 운영회의 및 합창단 모임을 가진 조형예술대학 동창들

시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약학대학

회장__이미애(약학 79)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2017년 9월 6일(수) 오전 11시 선정릉역에 위치한 수담 한정식에서 임원 및 각 기대표 50명이 참석하여 정기 임원 및 기대표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 및 회계보고, 약학연구소후원회 경과보고와 함께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지고, 약대건축기금 현황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10월 23일(월), 잠실 롯데호텔 월드점에서 제54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퇴임한 약대 은사들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의 축하 속에 총 250명이 참가하였다. 수고한 최혜정(약학 49) 고문과 한사숙 고문(약학 51)에게 특별감사장을 수여하고, 자랑스러운 약사금탑상 등을 수상하여 모교 약대의 위상을 높인 동창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 50주년을 맞는 18기 동창들의 재상봉과 축하식을 통해 선배들이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이 오늘의 약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축하곡으로 율동을 곁들여 ‘아름다운 노래 메들리’를 하였고, 답가로 문화부 합창단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화답하며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만들었다.

오찬 이후 가진 총회에서는 동창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와 각부 보고가 잇달았고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위원회, 전국개국 동문회 경과보고가 있은 후 임원 개선이 있었다. 회장 이미애 동창, 부회장 황미경(약학 79)·김용재(약학 82) 동창, 감사 강옥수(약학 76)·박하영(약학 77) 동창이 선출되었다.

4부 화합의 시간에는 약대 동창회 합창단의 합창, 색소폰 콰르텟의 연주, 김숙자(체육 64) 모교 명예교수의 건강체조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진 후 교가제창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11월 13일(월)에는 하현주(제약 81) 약대 학장 초청으로 아령당에서 교수들과 신구 임원 30여 명이 모여 점심 만찬 겸 회의를 하였다. 11월 16일(목)에는 모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약대 동창회가 후원하고, 이대 약대 약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이 열려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11월 29일(수)에 루안에서 정기임원회를 하였다.



아령당에서 열린 하현주 약대 학장 초청 오찬 모임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국어국문학과

회장 __ 남형원(73)

바자회 참여로 돈독한 정 나눠

2017년 9월 21일(목)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액세서리와 패션시계, 게르마늄 팔찌 등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으며, 절찬리에 판매를 마쳤다. 동창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물건 판매도 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바자회에서 판매한 국문과 동창회

영어영문학과

회장 __ 김혜정(72)

2017 영학회 성공적으로 개최

2017 영학회 추계강좌가 2017년 10월 17일(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31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유정(76) 부회장의 사회와 김혜정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모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태경 교수를 초청하여 ‘셰익스피어 이노베이션: 시대와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인상 깊은 강연을 들었다. 원래 1회 특강이었으나 참석 인원 모두가 2탄을 요청해서 내년에 다시 열 예정이다.

11월 16일(목) 25명의 기간사와 임원들이 경복궁에서 모여 역사탐방을 하였다. 기간사들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우리의 문화를 배우자는 취지로 시작하여 이번이 2차 탐방이다. 수문장 교대의식으로 시작해서, 고종이 덕수궁으로 옮기기 전 주로 거주했던 근정전, 경회루, 소주방,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건청궁, 향원정을 차례로 탐방하며 우리 역사를 알게 되었고 우리 문화에



경복궁에서 역사탐방 시간을 가진 영문과 동창들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궁뜨락에서 골동반으로 하루를 맛있게 마무리하였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_ 배혜화(77)

안동 종갓집으로 동창들과 여행 다녀와
모교 불어불문학과 동창 모임 ‘아미회’는 2017년 10월 18일(수) 안동 여행을 다녀왔다. 안동 종갓집에서 제사 체험을 하고, 종부들이 준비한 오찬을 즐긴 후, 지례예술촌에서 하루 숙박하면서 고택 체험도 하였다. 안동에 있는 임동초등학교 운동회에 종손팀으로 참석하여 학생들과 출다리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수학여행 같은 여행을 다녀왔다.



수학여행 같은 안동 여행을 다녀온 불문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__ 이봉무(72)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열어

2017년 9월 21일(목) 열린 총동창회 대바자회에서 독문과 동창회는 액세서리, 오미자, 대추 효소 등을 판매하였다. 총동창회장 및 임원, 총장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한 독문과 동창들

을 비롯 많은 동창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해 주었다. 또한 외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한 동창들이 즐거운 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9월 22일(금) 독문과 기간사 모임이 이화경(78) 동창의 ‘샐러드 마스터 Book&Cook’ 지사에서 쿠킹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동창들은 환담을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11월 23일(목) 독문과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유형종 무지크바움 대표를 초빙하여 ‘우리는 왜 라트라비아타에 열광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며 오페라를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독교학과

회장__ 김선영(88)

가을 야유회 다녀와

2017년 10월 26일(목) 30여 명의 동창이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다. 충남 예산의 추사고택과 당진의 아미미술관, 합덕읍 솔뫼성지를 둘러보았고, 윤혜신(88) 동창이 운영하는 당진 합덕읍 소재 ‘미당’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60학번부터 90학번까지 30년 차이의 선후배가 함



추사고택을 방문한 기독교학과 동창들

께한 훈훈하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었다.

사학과

회장_한상혜(73)

석모도 보문사로 가을 정기 답사

2017년 9월 28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6월 22일(목) 사학과 동창회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한상혜 회장은 새로 구성된 동창회 임원진을 소개하고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갈 비전



석모도 보문사로 가을 정기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과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고문단을 비롯한 여러 간사들의 제언이 이어졌으며 동창회의 발전 방향에 관해 간사들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9월 21일(목) 열린 총동창회 바자회에 동창들이 적극 참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10월 26일(목) 석모도 보문사로 가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지난 6월 새로 개통된 석모대교를 통해 이전보다 접근이 쉬워진 보문사에서 나한석굴과 마애석불좌상 등의 유명한 문화재를 돌아보고 강화도의 전통시장에 들러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눈으로 보고 즐기는 기회도 가졌다.

11월 30일(목) 용수산에서 열린 간사회에서는 사학과 동창회 장학금 대상 학생 선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12월 4일(월) ‘이화인의 밤’과 12월 7일(목) ‘이화가족 성탄예배’ 등 학교 행사에 대한 참석 안내가 있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한인영(72)

학과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2017년 7월 21일(금) 대학교회 소예배실에서 고문인숙 은퇴 교수 추모예배를 가졌다. 고문인숙 은퇴 교수는 1969년부터 모교 사회사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태화사회복지관 이사를 겸임하였으며, 1997년 은퇴 후 미국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헌신해 오다 지난 7월 17일(월) 지병으로 소천하였다. 장윤재 교목실장의 인도로 진행된 추모예배에는 이화여대 전·현직 교수, 태화사회복지관 직원을 포함해 생전에 문 교수를 사랑하



사회복지학과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동창들

고 기억하는 많은 지인들이 참석하였다. 한인영 회장은 추모동영상과 부의금을 미국의 유족에게 전달하였다.

9월 14일(목) 이삼봉홀에서 사회복지학과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혜숙 총장의 축사와 한인영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후배사랑기금식을 선포하였으며, 100여 명의 동창이 모여 만찬을 함께하고 행운권 추첨행사를 하며 잔치 분위기를 즐겼다.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70년 동안 1기 졸업생 박보희(사복 51) 교수를 비롯하여 2,300여 명의 졸업생 및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모교에 설립된 학과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모임을 개최한 물리학과

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관현악과

회장__김정미(90)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가 2017년 9월 25일(월)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다. 단장 김기순(기악 66) 동창의 지휘 아래 바이올린에 문선희(관현 11) 동창, 피아노에 이귀란(피아노 90)·곽예림(피아노 12) 동창, 바올라에 김문정(관현 94) 동창이 협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물리학과

회장__이미경(86)

이화 물리 송년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

2017년 11월 24일(금) 토다이 반포점에서 '2017 이화 물리 송년모임'을 가졌다. 총 43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재미있는 게임과 율동, 그리고 혜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 해를 마



영산아트홀에서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작곡과

회장 _ 문성희(80)

30주년 음악회와 대바자회에 참여

2017년 3월 20일(월) 열린 음대 정기총회에서 작곡과 한예영(16학번)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였으며, 5월 30일(화) 김영의 흘에서 열린 이화 30주년 음악회에서 이경원(87) 동창의 곡이 연주 되었다. 또한 9월 21일(목)에 열린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작곡과 동창회도 참여하였다.



채연전에 참석한 동양화과 동창들

위해 축하금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날은 동양화과의 큰 스승인 원문자 명예교수가 후학 양성을 위해 동양화과에 기증한 장학금을 수여하여 더욱 뜻깊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한 석사생 1명과 학부생 1명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의 명예로운 첫 수상자로는 김한비(13학번) 재학생이 결정되어 임원진, 교수, 선후배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동양화과

회장 _ 이숙진(85)

제36회 채연전 개최

동양화과 동문전인 채연전이 ‘유현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문정(00, 미술평론가·조형예술학 박사) 동창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에는 총 80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원문자(66) 명예교수, 김보희(74) 명예교수, 이신호(72) 동창, 김귀주(74) 전 녹미회장, 정선진(74)·이미연(76)·이은영(78) 전 동창회장과 오숙환(75) 교수, 이종목 교수, 서은애(93) 교수, 이기영 교수 등 내빈이 참석하였다. 출품한 작품 중 두 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제36회 채연상은 이예승(98)·박상미(99) 동창이 수상하였다.

11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열린 학부 졸업전 오픈식에 동창회 임원들이 참여하여 예비 동창이 됨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안녕을

조소과

회장 _ 이선희(81)

34번째 이화조각회 정기전 개최

조소과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이화조각회’가 2017년 10월 18일(수)부터 24일(화)까지 인사동 관훈갤러리 전관에서 34번째 정기전 <명불허전(名不虛展)>을 개최하였다. 54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국 조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박일순(74) 명예교수, 원인종 교수, 박숙영(80) 교수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1일(화)에는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린 조형



이화조각회에 참가한 조소과 동창들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전시에 이선희 회장, 나진숙(84) 부회장,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해 전시를 빛낸 4학년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매년 조소과 동창회에서는 3점 이상의 작품, 졸업 후 진로계획, 성적표 등 포트폴리오 심사 후 장학금을 수여해 왔는데 2017년에는 3학년 김보경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과 상장을 전달하였다.

제34회 이화조각회에 참가한 동창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정자(66), 박일순(74), 심인자(74), 황지선(74), 심부섭(76), 이혜원(76), 고혜숙(77), 최윤희(77), 임영란(78), 김영란(79), 김희경(79), 신은숙(79), 신은주(79), 정영숙(79), 정혜영(79), 최은경(79), 이선희(81), 나진숙(84), 정수안(84), 조미연(84), 이정미(85), 이현숙(85), 최승애(85), 이경희(86), 정미숙(87), 김선미(88), 이채현(88), 장회준(88), 호해란(88), 김선영(89), 김정연(89), 이정원(89), 자연신(89), 이영송(90), 장선아(90), 김연(91), 손정은(92), 김윤경(93), 김서경(94), 김양선(94), 조은희(94), 오정선(95), 백인정(96), 이지은(97), 박은선(98), 오수연(98), 안경하(99), 차경화(00), 김순임(02), 이재순(02), 장유정(02), 조재영(03), 신정원(08), 이수원(12).

섬유예술과

회장 이상미(88)

‘이화섬유조형전’과 ‘실과 바늘의 작업전’

2017년 9월 26일(화)에서 30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제31회 이화섬유조형전’을 개최하였다. 섬유예술과와 섬유예술전공 대학원 동창 작가들로 구성된 이화섬유조형회(회장 전경화·89)는 1986년을 첫 전시를 시작으로 30년간 그룹전 및 국내 해외 초대전, 워크숍, 실용소품전, 타 대학 연합전 등 다양한 작품전을 꾸준히 개최하였다. 현재 전원 섬유조형 작가로서 교육계에 몸담거나 산업체의 디자이너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60여 명의 회원 중 23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오픈일에는 역대 동창회장들과 작가 선후배들이 신임 동창들과 함께 어우러져 전시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오현아(91, 개념과 오브제)·홍동희(생미 89, 섬유부조)·정재선(94, J.Chung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동창의 작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창들과 서로 단합하며 새로운 발전과 지속적인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21회 이화섬유전–실과 바늘의 작업전’은 대



이화섬유조형전에 참석한 섬예과 동창들

한민국예술원의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미술작가 및 단체 전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술원 전시실(100평)을 지원받아 11월 23일(목)에서 12월 11일(월)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 자수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미술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현대자수 조형으로 새로운 예술성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자수 전시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구상, 추상, 드로잉, 설치, 입체 조형을 통해 기존 자수에서 확장된 현대예술로서 가치와 시대적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이상영(94)·주선경(96)·오시연(99)·이윤경(03)·차수진(05)·배성은(09) 동창이 참여하였다.

장식미술과(패션)

회장_곽미지(87)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개최

2017년 10월 14일(토) 오후 1시, 모교 ECC 내 이삼봉 홀에서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있었다.

가을의 정취가 한창인 모교를 오랜만에 방문한 약 130명의 패션디자인전공 동창들은 서로 간의 친목 도모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 행사는 1부에는 개회기도 및 동창회장 인사, 임원 소개, 격려사, 학과 소개의 순서가 있었으며, 2부에는 점심 식사 후 각 기별 동창 소개 및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생들은 그동안 바뀐 학과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동창들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 및 소통의 자리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한 패션디자인전공 동창들

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무용과

회장_윤덕경(76)

50주년 송년의 밤 개최

무용과 동창회는 2017년 11월 25일(토) 프리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무용과 50주년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추진위원장: 한명옥(79)·강혜련(85) 부회장). 이날 행사는 무용과 졸업생들의 송년 모임이자 무용과의 50회 졸업생 배출을 기념하는 자리로, 전임교수를 비롯하여 역대 동창회장과 1회부터 50회까지 졸업생 130여 명이 참석했다.



1회부터 50회 졸업생까지 선후배 만남의 시간을 마련한 무용과

KBS 아나운서 박은영(05) 동창의 사회로 1부 기념 행사 및 만찬, 2부 특별공연 및 어울림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1회 졸업생들과 50회 졸업생들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유아교육과

회장__유정옥(88)

이대부속유치원 연구학교 보고회 후원

2017년 11월 10일(금) 모교 LG컨벤션홀에서 이대부속유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보고회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유아평가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전국 300여 명의 유아교육관련 종사자들에게 발표하였다. 이대 부속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 2017년 3월부터 해당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고회에는 전국의 유아교육관련 교수, 장학사, 장학관,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300명이 참석하였고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발표 외에도 이대부속유치원의 2개 반을 공개, 수업 참관 및 교실 환경 참관이 이루어졌다. 보고회에서 이대부속유치원 원장 박은혜(83) 동창의 인사, 사범대학 학장 홍용희(78) 동창의 격려사 및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 정혜손(대학원 08) 동창의 지도조언이 있었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보고회를 준비하는 이대부속유치원에 약간의 후원을 하여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비롯하여 각 대학과 전국 교육청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이 서로



이대부속유치원 연구학교 보고회에서 이루어진 공개수업 참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

회장__정조인(83)

대바자회 참가

2017년 9월 21일(목) 총동창회 주관으로 대바자회가 있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이스키아 화장품의 기초제품 및 마스크팩과 정수농장의 장류 및 참기름 등을 판매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날은 김숙희(가정 60, 전 교육부 장관) 동창이 격려차 방문해 주었다. 바자회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식품영양학과 후원금으로 전달받았다.



대바자회 행사에 참여한 식영과 동창들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뉴욕 지회

회장__박영숙(경영 86)

뉴욕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

2017년 9월 12일(화) 정기모임을 열고 뉴욕에서 열리는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준비위원회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모임으로 9월 23일(토)에는 이사장 유덕향(약학 71) 동창 집에서 중부 뉴저지 모임을, 10월 11일(수)에는 박혜경(사회과교육 82) 동창 집에서 스탠튼아일랜드 모임을 가졌다.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뉴저지 소재 Teaneck Marriott 호텔에서 2017년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가 열렸다. 'Lighting the Future'를 주제로 김혜숙 모교 신임 총장과 김영주 총동창 회장, 김훈순 대외협력처장 등 서울에서 온 귀한 내빈들과 국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 그리고 전 미주에서 모인 동창들과 함께 모교를 기반으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멜버른 지회

회장__박혜진(독문 97)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1월 19일(일) 12시 멜버른 이스트에 소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한 북미주 동창들



가족 야유회로 진행된 송년모임에 참석한 멜버른 동창 가족들

재한 Phoenix Park에서 동창들과 그 가족 34명이 함께 모여 가족 아유회로 크리스마스 파티 겸 2017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창 무더운 여름인 멜버른에서 살고 있는 동창들은 모처럼 열린 피크닉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며 어느 때보다 끈끈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수학 92)

송년의 밤 행사로 푸근한 연말

2017년 12월 3일(일) 노트르담 드 그라스에 위치한 일식집 향진에서 부부 동반으로 23명이 모여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동창들로 반기웠던 이번 모임에서는 올해로 졸업 50주년이 되는 이수형(커미부 67) 동창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공복자(장미 59입) 동창의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였고, 식사 후에는 이채화(무용 76) 전 회장의 진행으로 모교 관련 퀴즈를 풀며 많이 달라진 모



연말을 맞아 동창들과 푸근한 시간을 나눈 몬트리올 지회 동창들

교의 현재 모습을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때마침 도착한 동창수첩과 전통적으로 연말 모임 때 전달하는 포인세티아 화분 덕에 더욱 푸근한 하루를 즐길 수 있었다.

몬트리올 지회는 연말을 맞아 몬트리올 아동병원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보스턴 지회

회장 __ 김지영(교육 82)

연말 파티로 동창들과 행복한 시간 가져

2017년 11월 25일(토) 벌링턴에 위치한 콘도 클럽하우스에서 연말 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여 명의 동창이 모여 교가를 제창하며 행사를 시작한 뒤,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보내준 ‘모교 홍보 동영상’ 상영을 통해 모교의 발전상과 자랑스런 선후배들의 활동을 보며 잠시 학창 시절을 회상하였다.

회계보고와 참석한 동창들의 자기 소개에 이어, 동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식사를 나누며 김경애(의학 70) 동창이 준비한 <새(Bird) 이야기>



연말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나눈 보스턴 지회

동영상을 감상하였다. 이어 뉴욕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했던 보스턴 지회의 텔런트쇼 공연 동영상 <I Will Follow Him>을 틀자 모든 동창이 파안대소하며 즐거워하였다.

조진숙(섬예 94) 동창의 아들 크리스 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에 이어서, 김지영 동창의 리드로 진행된 ‘풍선 배구’, ‘건강 율동’ 등의 게임을 통해 많은 상품을 동창들이 나눠 가졌고, 김경애 동창의 인도로 성탄 캐럴을 부르며 아이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강정림(교육 85) 동창이 정성으로 마련한 선물백을 나누어 가진 뒤,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모임을 마쳤다.

음식 비용을 기부한 김홍해(가정 64·이사장) 동창, 상품을 기부한 김지영 동창, 선물백을 기부한 강정림 동창, 장식과 꽃을 준비해 준 회계 신은경(법학 88) 동창, 모임 장소를 주선해 준 이해원(약학 70) 동창과 행사를 위해 장소 배치, 뒷정리 등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이화 사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곽정연(독문 76)

장학기금마련 동창회 골프대회 열어

2017년 9월 2일(토) Hillsborough에 위치한 곽정연 회장 집에서 40명의 동창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뉴욕에서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할 텔런트쇼 연습과 9월 30일(토)에 있을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동창회 골프대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학금 대상은 북가주 교포로서 11, 12학년 학생으로 정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동창회 골프대회를 개최한 북가주 지회

10월 7일(토) 곽정연 회장의 집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정기모임을 가졌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동창회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을 감사하며, 수익금으로 1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개최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텔런트쇼에서 북가주 지회가 영예의 1등을 차지하였다. 1등 상금은 총동창회에 기부하였다.

11월 4일(토) 산호세에 위치한 한식당 산장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장학생 13명과 그 부모님들이 함께한 이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 __ 정선주(성악 68)

동창회 20주년 생일파티 열어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동창 명단에는 25명의 회원이 있으나, 평균 참석 인원은 10명 내외이다.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모교의 ‘진선미’의 교훈을 항상 생각하며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고, 모교와



동창회 20주년 생일파티를 위해 모인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모교 동창회를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성의 있게 보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지난 16년간 총동창회에 해마다 동창회비를 보내고 있다. 모교 총동창회 100주년 때 그동안 세인트루이스 지회에서 모교에 보낸 성금을 계산하니 당시 3만 달러가 넘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올해로 발족한 지 20년이 된 세인트루이스 지회(1997년 10월 14일 창립)를 위해 임원을 맡아 주었던 동창들은 다음과 같다.

* 초대 회장단: 회장 조연순(영문 54입), 서기 안성은(영문 90), 회계 최경선(영문 61).

* 전 이사장: 김귀현(영문 56).

* 역대 회장: 정선주(성악 68), 김혜영(간호 79), 정홍순(성악 62), 양혜자(심리 74).

* 현 회장단: 이사장 최경선, 회장 정선주, 서기 최길자(화학 65), 회계 이수자(가정 63), 2017년 10월 14일(토)에 이수자·한정자(교육 63)·송경자(약학 65)·최길자·정선주·최경선·남진우(간호 73)·김혜영 동창이 모여서 지회의 20번째 생일파티를 하였다. 최경선 동창의 저녁 초대로 웨이홍(중식당)에 모여 송경자 동창의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달콤한 케이크와 국화꽃 향기와 가을바람과 더불어 배꽃의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한편 이번 태풍 하비로 피해를 입은 휴스턴 지회 동창을 위한 현금이 있었다.

영국 지회

회장__한진경(장미 92)

각 분야에서 활약한 이화동창

다채로운 문화행사의 계절에 이화동창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더욱 돋보였습니다.

강순열(가관 77) 동창의 개인 전시회 'Between HEART&MIND'가 2017년 9월 20일(수)부터 30일(토)까지 10일간 대영박물관 정문 앞 뮤지엄 스트리트에 있는 '한 컬렉션'에서 열렸다. 참석한 동창들은 손수 짠 태피스터리에 담긴 강 동창의 집념을 보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전혜정(무용 90) 동창이 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런던 동아시아영화제(London East Asia Film Festival)가 10월 19일(목) <남한산성>을 개막



강순열 동창의 개인 전시회를 참관한 영국 지회 동창들

작으로 10일간 런던 전역에서 열려, 동아시아 8개국에서 초청한 영화 50편을 상영하였다. 영화 상영뿐 아니라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참석하여 상영 후 관객과의 만남 시간, 영화음악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 등이 진행되었다. 영국 지회 동창들은 전 동창의 초청으로 <남한산성>, <직지코드>, <50>, <더 테이블> 등 한국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및 인기 배우와 대화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영화 <직지코드>는 고려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을 기록한 추적 다큐멘터리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남한산성>의 이병현 배우, 단편영화 <50>의 차인표 감독, <더 테이블>의 정은채 배우 등이 수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영어로 질의응답하는 모습도 자랑스러웠다.



첫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울산 지회

이번 바자회는 울산 지회가 주최한 첫 바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 매년 바자회를 꾸준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조은희(경제 91)

울산 지회

회장__안진희(관현 76)

울산에서 바자회 개최

2017년 11월 17일(금) 울산 옥교동의 SPECIAL TEA CAFE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맛간장, 떡국 등 먹을거리와 동창들의 기증품인 옷, 가방, 수제 호두양갱, 가죽공예품 등을 준비하였다. 김동현(가관 75) 동창은 수고하는 동창들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샌드위치와 유부초밥을 만들어 와서 격려해 주었다. 이런 행사로 인해 선후배 간의 교류, 모교에 대한 애정, 동창 간의 단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바자회 수익금은 울산 지역의 어려운 학생과 모교의 장학생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2018년도 회장 선출과 새 동창 환영회

2017년 9월 30일(토)에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 모임을 가졌으며, 총 10명의 공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은희 전 부회장이 2018년 워싱턴DC 지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새 동창 환영회를 열고 정겨운 시간을 보낸 워싱턴DC 지회

되었다.

10월 말에는 지회 동창 14명과 이화 사위 4명이 뉴욕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하여 김혜숙 총장을 비롯한 많은 모교 관계자들 및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만났고, 워싱턴DC 지회의 단합 및 다른 지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 주었다. 또한 올해 진행된 지회 활동과 함께 휴스턴 수해 동창들을 위한 성금 및 모교에 재학 중인 탈북 재학생들을 위한 미국 체재비 모금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11월 4일(토) 새 동창 환영회를 진행하였으며 10여 명의 동창과 7명의 새 동창이 곳은 날씨에도 전 회장 김성혜(융합보건 88) 동창 집에 모여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3시간을 운전하여 도착한 새 동창을 통해 다시 한 번 동창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며, 1940년대 졸업 동창부터 2000년 대 졸업 동창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창이 모여 기부로 이뤄진 음식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 _ 문성애(생미 81)

연례모임에서 새 회장 선출

2017년 9월 27일(수)은 월례 모임으로, 8명의 동창이 Grabelsek Vineyards에 함께 포도를 따러 갔다. 포도를 유난히도 좋아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포도를 따며 자연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근처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Ferrante로 자리를 옮겨 포도를 따느라 흘린 땀을 식히며 맛있는 점



연례모임을 갖고 화목한 시간을 보낸 클리블랜드 지회

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10월 25일(수)은 Wild Mango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곳은 맛도 좋지만 정성스럽고 예쁜 음식 차림으로 소문난 곳이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즐거웠다.

11월 18일(토)은 전 회장 임영미(유교 83) 동창집에서 12명의 동창들이 연례모임을 가졌다. 김영미 동창(영교 82)의 기도 후에 정성껏 준비된 점심을 맛있게 나누었다. 2017년 회계보고와 활동보고가 있었고, 2018년도 회장과 이사들을 선출하였다. 2018년 회장으로 선출된 문성애 동창은 클리블랜드 지회의 친목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 동창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클리블랜드 지역의 자선단체들과 한인회의 한글학교 등을 돋기 위해 동창들이 기부한 물품들로 Silent Auction을 하였다. Auction의 경쟁적인 모습이 전혀 아닌 서로에게 어울리는 물건들을 골라주고 권하는 가운데 동창 간의 화목과 자매 된 끈끈한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모임의 꽃은 역시 게임이었다. 인명숙(약학 73) 동창이 게임을 탁월하게 진행하여 동창들은 동심

으로 돌아가 참으로 많이 웃으며 선후배 간에 더욱 가까워지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참석한 동창들 모두 역시 클리블랜드 지회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지회라며 다음달 있을 만남을 기대하며 모임을 마쳤다.

파리 지회

회장_홍성부(생미 84)

동창과 함께하는 한가위 모임

재불이화동창회는 2017년 10월 12일(목) 파리 14구에 새로 개업한 권식당에서 전임 회장단과 현 임원진, 그리고 70세 이상의 대선배들이 함께 하는 한가위 모임을 개최하였다. 타지에 있지만 고향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이충석(심리 56)·김희손(불문 61)·민경화(국문 62)·이병주(불문 62)·오미자(불문 73)·송미영(불문 76)·함미연(불문 81) 동창 및 동창회 임원 홍성부·박현선(의직 91·부회장)·박세연 (서양 94·총무)·박지은(가관 96·서기)·함화진(컴공 02·회계) 동창 등 총 12명



파리 지회 박지은·박현선·이충석·송미영 동창(왼쪽부터)

의 동창이 참여하여 한식 및 회장이 직접 준비한 떡과 함께 오붓한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포틀랜드 지회

회장_김미진(도예 79)

숲속의 피크닉 동창 모임

2017년 9월 28일(목)에 시내 근처에 있는 자연 보호 수풀림에 동창들이 모였다. 그곳은 포틀랜드 시에서 미래의 한국의 숲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그 첫번째 식수로 한국의 울산시에서 기념 식수를 한 곳이다. 도시 안에 자연 숲이 있다는 것을 30년 넘게 살아온 동창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서 입을 모아 감탄을 하였다. 최민희(화학 63) 동창이 김밥을 준비하고, 각자 간단한 간식과 과일을 준비하여 뜻자리 깔고 옹기종기 모여서 마치 어릴 때처럼 소풍 온 것 같다고 행복해 하였다. 점심 식사 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숲을 30분가량 걷고 헤어졌다. 오랜만에 대선배인 김양희(사회과교육 57) 동창도 함께한 모임이었다. 동창들은 가능하면 답답한 음식점보다 이



숲에서 피크닉 겸 동창모임을 진행한 포틀랜드 지회 동창들

렇게 자연 속에서 동창회를 진행하자고 입을 모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홍콩 지회

회장_정도경(사복 81)

모교 신임 총장과 홍콩 동창들의 만남의 자리
2017년 9월 7일(목), 홍콩 모 대학교의 세미나에
참석차 홍콩을 방문 중인 모교 김혜숙 총장이 홍
콩 동창들과 만찬의 자리를 가졌다.



홍콩 동창들과 김혜숙 모교 총장이 함께 만찬의 자리를 가졌다

방혜자(교육 66) 동창의 초청으로 Hong Kong Country Club 중식당에서 마련된 총장환영만찬에는 정도경 회장을 비롯 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신임 총장의 홍콩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11월 9일(목)에는 2017년 마지막 동창 모임을 정도경 회장의 오찬 초대로 홍콩섬 타임스퀘어 매드포갈릭에서 가졌다.

이날 모인 12명의 홍콩 동창들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각자 준비한 2017년도 동창회비를 한혜린(법학 09) 총무에게 전달했다. 한혜린 총무는 이날 모은 동창회비를 신한은행을 통해

서 총동창회에 송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휴스턴 지회

회장_정미선(수교 85)

동창들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

9월에 예정된 모임은 태풍 하비의 영향으로 전 휴스턴이 거의 잠기게 되어 취소하였다. 동창 중 8명이 본인의 집이 침수되어 수재민이 되었고, 크고 작은 사업장이 잠긴 사람들도 많았다.

모두가 실의에 빠지고 많이 힘들 때 북미주 각 지회에서 따뜻한 위로와 관심과 기도를 해주어 무척 큰 힘이 되었다. 또 뉴욕 총회 때 성금도 걷어 주어, 8명의 동창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10월 모임은 긴 방학을 끝내고 재난 후의 만남이라 양영회(조소 93) 동창의 미술사 특강을 들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11월 모임은 총회로 모여 1년간의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로 마무리하고, 양영회 동창의 미술사 특강 2탄과 최성숙(약학 65) 동창이 준비한 점심으로 영육을 살찌우는 귀한 시간을 많은 이들과 함께하였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김혜숙 총장과 함께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김양식(영문 54) 동창

김양식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인도박물관이 개관 6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 ‘인도 악기와 민화’ 전을 2017년 9월 1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개최하였다.



김양식 동창

황수로(수학 58) 동창

궁중 채화장(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4호) 황수로 동창이 2017년 11월 7일(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국빈 만찬장에 궁중채화 ‘홍벽도화준’을 설치하였다. 황 동창은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의궤 등 고문헌을 근거로 궁중채화 복원과 전수에 전념하고 있다.



황수로 동창

송창주(가정 62) 동창

송창주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이준열사기념관이 2017년 11월 18일(토) 확대 재개관했다. 이준 열사가 순국한 ‘드 용 호텔’을 개보수한 이준열사기념관은 유럽에서 이루 어진 항일 독립운동을 알리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다.

최구자(서양 65) 동창

2017년 5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서울 선화랑에서 12회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9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KIAF 조선화랑 초대전(삼성동 코엑스)에 출품하였다.



최구자 동창

이대동창문인회

이대동창문인회(회장 조한숙·국문 69)는 2017년 11월 24일(금) 문학의집 서울 산림문화관에서 회원 75명의 작품이 실린 동인 수필집『그대에게 가는 꽃길』출판기념회와 제20회 이화문학상 시상식을 하였다. 이화문학상은 시조집『아버지의 산』을 출간한 이정자(기독 66) 동창이 수상하였으며, 김양식(영문 54) 동창이 제1회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동창문인회에서는 2017년 4월 일본 도쿄 문학 기행을 다녀왔다. 일본 근현대 문학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생가 터, 기념관 등을 찾아 교감을 나눈 소회들은 동인지에 실었다.



김경은(회화 66) 동창

이화기독미술인회(회장 김경은)는 2017년에 3차에 걸쳐 ‘하나님의 창조 100호전’을 열었다. 2017년 5월에 개최한 1차 전시에 이어 2차 전시는 북한선교후원전으로 극동방송갤러리에서 2017년 6월 9일(금)부터 29일(목)까지 진행되었으며, 3차는 진부령미술관에서 10월 20일(금)부터 2018년 1월 11일(목)까지 진행되었다.

강순미(작곡 71) 동창

제36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 대상에 성신여대 명예교수 강순미 동창의 아쟁 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이 선정되었다.



강순미 동창

김선미(독문 71) 동창

2017년 진주 사진 축제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포트 폴리오 리뷰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2017년 10월 18일(수)부터 23일(월)까지 이수 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김선미 동창

윤덕경(무용 76) 동창

윤덕경 동창이 2017년 11월 29일(수) 메리어트호텔에서 『윤덕경, 춤을 기록하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서원대학교 교수 퇴임을 앞둔 윤 동창의 무용 활동을 정리한 화보집이다.



윤덕경 동창

이채화(무용 76) 동창

몬트리올 한인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이채화 동창이 2017년 9월 30일(토) 재외동포재단으로



이채화 동창

부터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한국어 교육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함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영란(조소 79)·이선희(조소 81) 동창

2017년 11월 11일(토)부터 17일(금)까지 아산갤러리에서 사색당파전을 개최하였다.



김영란 동창

김충실(국문 79) 동창

김충실 동창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꿈과 사명이 된 연극, 박재연 김충실 부부’라는 타이틀로 출연하여 2017년 8월 28일(월)에 방송이 되었다.



김충실 동창

김희경(조소 79)·최승애(조소 85)·김정연(조소 89) 동창

2017년 9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린 KIAF 2017에 참여하였다. 한편 김희경 동창은 9월 16일(토)부터 30일(토)까지 이탈리아 폰제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희경 동창



최승애 동창

최은경(조소 79) 동창

2017년 9월 28일(목)부터 2018년 1월 4일(일)까지 춘천 이상원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최은경 동창

서승석(수학 80) 동창

프랑스 아시아 친선협회 한국 대표 서승석 동창

이 한불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7년 11월 4일(토) 제11회 나눔대상 여성리더 대상 국회상 임위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서승석 동창

이선희(철학 80) 동창

2017년 11월 15일(수) 독일 쾰른 대병원 부원장 이선희 동창이 이화여대 의대·의전원 초청 특별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주제는 ‘철학도에서 정신과 의사로 – 독일에서의 도전’이었다.



이선희 동창

이시영(약학 80) 동창

2017년 11월 5일(일) 서울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이화약대 전국개국동문회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이시영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시영 동창

함영림(피아노 80) 동창

피아니스트 함영림 동창이 2017년 12월 7일(목) 모교 중강당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함 동창은 모교 음대 학장과 공연예술대학 원장, 한국피아노두오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함영림 동창

한자경(철학 81) 동창

모교 철학전공 교수 한자경 동창이 저서 『심층 마음의 연구』로 2017년 10월 8일(일)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선정 ‘제7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500만 원이다.



한자경 동창

원혜경(영문 81) 동창

선화랑(대표 원혜경)이 개관 40주년 특별전 ‘40년, 새로운 창을 열다’를 1,2부로 나누어, 1부 전시는 2017년 10월 11일(수)부터 28일(토)까지, 2부 전시는 11월 1일(수)부터 14일(목)까지 열었다.

박경애(무용 82) 동창

2017년 11월 21일(화)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동춤단과 함께하는 박경애 춤나들이’를 공연하였다.



인성희 동창

인성희(종음 82) 동창

백석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인성희 동창이 2017년 9월 15일(금) 세종 체임버홀에서 독일가곡 연주회를, 11월 2일(목) 백석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또한 11월 25일(토)부터 12월 1일(금)까지 인천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9회에 걸쳐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나진숙 동창

채성숙(동양 82)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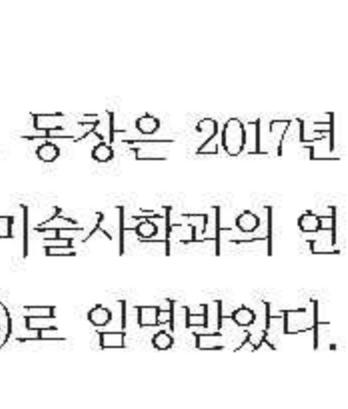
‘Start of Mind’라는 주제로 2017년 11월 6일(월)부터 20일(월)까지 갤러리 KUNST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나진숙 동창

나진숙(조소 84) 동창

2017년 10월 17일(화)부터 12월 4일(월)까지 서초구 갤러리 Well에서 개인전 ‘The Blue Echo’을 개최하였다.



고혜련 동창

고혜련(사학 85) 동창

단국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고혜련 동창은 2017년 7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동양미술사학과의 연구협력 스태프(Research Associate)로 임명받았다.

또한 11월 28일(화)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에 관한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희영(정외 85) 동창

용산구의회 의원 박희영 동창이 2017년 11월 1일(수) 서울 용산백범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서 ‘지역경제발전공로 대상’을 받았다.



박희영 동창

이선주(성약 85) 동창

2017년 12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공근혜 갤러리에서 ‘Memorabilia’ 전시회를 열었다.



이선주 동창

이정미(조소 85) 동창

2017년 9월 1일(금)부터 30일(토) 까지 하슬라아트월드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정미 동창

장현재(동양 85) 동창

2017년 10월 20일(금)부터 25일(수)까지 갤러리써 포먼트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김복만·김영숙·김현주·민유정·박미선·박정란·서은미·신숙희·양연이·이난희·이현숙·임미혁·장명옥·전현선·한영희·한은옥·홍순희·황주희(이상 동양 86) 동창

제7회 이채전(동양화과 86년 졸업 동기전)이 2017년 9월 13일(수)부터 19일(화)까지 올갤러리에서 열렸다.

채림(불문 86) 동창

2017년 12월 22일(금)부터 2018년 1월 28일(일)

까지 학고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천연 윷과 실버, 자개, 산호, 호박 등 전통 보석과 젠스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채림 동창

김곡미(생미 87) 동창

연암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곡미 동창이 전남 담양 남촌 미술관에서 2017년 10월 25일(수)부터 31일(화)까지 ‘6차산업 패키지-디자인전’을 열었다.



김곡미 동창

조혜성(화학 87) 동창

LG화학은 2018년도 임원인사에서 중앙연구소 분석센터장 상무 조혜성 동창을 LG화학 최초 여성 전무로 승진시켰다. 조 동창은 화학물질 분석 전문가로서 신규 분석법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독자 기술확보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조혜성 동창

함영이(정외 87) 동창

IBK연금보험 상무 함영이 동창이 제2회 중랑문화 신인상 작품공모 수필 부문 우수상에 당선됐다. 시상식은 2017년 12월 1일(금)에 서울 중랑구 민회관에서 열렸다.



함영이 동창

곽진영(영문 88) 동창

건국대 교수 곽진영 동창이 제17대 한국정당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1월 1일(월)부터 12월 31일(월)까지이다.

심인숙(컴공 88) 동창
디지털조선일보 이사로 재직중
인 심인숙 동창이 2017년 10월 31
일(화) 제2회 금융의 날을 맞이하
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
하였다.



심인숙 동창

권희정·김문주·김수지·나은정·우진희·이보
경·이승은·이인경·최경아(이상 동양 89) 동창
모교 동양화과 1989년 졸업생들의 동기전인 비전
전시회가 2017년 11월 28일(화)부터 12월 5일(화)
까지 갤러리 가이아에서 열렸다. 또한 김수지 동
창은 ‘시감과 기억의 단면’이라는 주제로 9월 13
일(수)부터 10월 7일(토)까지 갤러리 M에서 초대
전을 개최하였다.

이상희(동양 89) 동창
'BREATHING'이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19일(토)
부터 10월 7일(토)까지 ab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
었다.

이주연(동양 90) 동창
'Compound Structure'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15
일(금)부터 26일(화)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을 열었다.

정진희(작곡 92) 동창
정진희 동창이 2017년 11월 30일(목)부터 12월 3일
(일)까지 'ACC창제작센터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품 쇼케이스를 가졌다. 정 동창은 싱가포르 작
가 림셍겐과 협업으로 증강현실(AR)과 사운드 기
술 접목한 작품 'R: 186sec'을 선보였다.

서은애(동양 93) 동창
모교 동양화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서은애 동창

이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주제
로 2017년 10월 17일(화)부터 24
일(화)까지 씨알콜렉티브에서 전
시회를 열었다.



서은애 동창

이정민(약학 93) 동창
이정민 동창이 2017년 11월 1일
(수),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
(CRO)인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
서비스(LSK Global PS)의
CDM(임상시험 데이터관리) 본부
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으로 선
임되었다. 이 동창은 LSK Global PS의 약물감시
부서장을 역임하였고, 국제 약물감시학회의 정회
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정민 동창

이지현(컴공 93) 동창
삼성SDS가 2017년 11월 16일(목) 발표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금융사업부 금융ICTO 팀장 이지현 동창
이 상무로 승진하였다.

구미경(동양 94) 동창
'The Crack-자연을 닮은 선'이라는 주제로 2017
년 8월 30일(수)부터 9월 13일(수)까지 비디갤러
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오수경(서양 94) 동창
2017년 11월 1일(수)부터 30일(목)까지 광주 동구
ACC 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채수정 동창

채수정 동창이 한국예술종합학
교 교학제2부처장으로 발령받았
다. 보직교수의 임기는 2017년 9
월 1일(금)부터 2년이다.

지혜령(교공 95) 동창

2017년 11월 16일(목) 실시된 삼성전자 2018년 임원 정기 인사에서 지혜령 동창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그룹 소속 상무로 승진하였다.



지혜령 동창

오정선(조소 96) 동창

2017년 9월 7일(수)부터 14일(목)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새벽녘의 시선’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희경(조소 96)·박은선(조소 98)·오수연(조소 98)·이지향(조소 98)·강선구(조소 99)·안경하(조소 99)·조수연(조소 99)·차경화(조소 00) 동창
2017년 10월 21일(토)부터 11월 19일(일)까지 소다미술관에서 조각그룹 비를 개최하였다.

최영은(종음 97) 동창

최영은 동창이 지휘하는 CGNTV 세라핌 합창단이 2017년 11월 4일(토) ‘생명의 빛 예수마을(홍정길 목사)’의 초청으로 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12월 26일(화) 제1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경희(동양 98) 동창

‘COLOR OF LIGHT’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13일(수)부터 18일(월)까지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윤영경(동양 99) 동창

윤영경 동창이 9번째 개인전 ‘와 유진경: 끝없는 산과 강 그 사이에 노닐다’를 2017년 9월 15일(금)부터 26일(화)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었다.



윤영경 동창

성인제(동양 00) 동창

‘생각의 기원-The Origin Of The Thought’이라는 주제로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햇불트리니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문정(동양 00) 동창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문정 동창이 2017년 11월 18일(토)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 공간 소극장에서 ‘코헤이 나와: 시선과 물질 사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문정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2017년 10월 20일(수)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017 GNAP-글로벌노마딕 아트프로젝트 독일&프랑스 참여 결과보고 상영회에서 발표하였다.



김순임 동창

박민정(경제 02) 동창

모교 경제학전공 교수 박민정 동창이 미국 유수 학술지인 《QME》와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선정하는 ‘Dick Wittink Award’를 수상하였다.



박민정 동창

이윤나(종음 02)·강다영(피아노 04) 동창

오르가니스트 이윤나·강다영 동창이 오보이스트 이병기 와 함께 2017년 11월 16일(목) 청란교회 정오연주회(한



이윤나 동창



강다영 동창

국오르가니스트협회 주최)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강동창은 9월 26일(화) 한국 오르간 학회 주최로 경동교회에서 파이프오르간 독주회를 가졌다.

이재순(조소 02) 동창

2017년 9월 1일(금)부터 10월 15일(일)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서혜리(피아노 03) 동창

피아니스트 서혜리 동창이 2017년 11월 13일(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김초혜(동양 04) 동창

초대 개인전 ‘플라워 가든’을 2017년 12월 1일(금)부터 31일(일) 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비스트로 카페 모브에서 열었다.



김초혜 동창

박지민(동양 04) 동창

‘산책 일기’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13일(수)부터 18일(월)까지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양윤주(성악 04) 동창

소프라노 양윤주 동창의 독창회가 12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양윤주 동창

김희진(컴공 05) 동창

유라이크코리아 대표 김희진 동창이 2017년 8월 31일(목)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7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희진 동창

전이랑(화학 06) 동창

2017년 10월 11일(수), 로레알이 후원하고 유네스코 프랑스 위원회와 프랑스 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2017 프랑스 로레알–유네스코 여성 과학자 상’ 펠로십 부문에서 수상했다. 전이랑 동창은 렌화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전이랑 동창

고은비(생명 08) 동창

2017년 10월 25일(수),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고은비 동창이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7 세계화장품학회 컨퍼런스(IFSCC)에서 우수 논문상(Host Society Award)을 수상했다.



고은비 동창

김보경(커미부 14) 동창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김보경 동창이 2017년 11월 30일(목)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여하는 ‘2017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김보경 동창

한정현(장미-패션 15) 동창

2017년 10월 19일(목) 런던 New Design Museum에서 킹스턴대학 패션쇼에 참가하였다. 또한 ZARA와 디자인 스쿨 학생의 협업작품인 ZARA 공모전 Shape The Invisible에 참여하여 파이널리스트로 선정, 스페인의 ZARA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가졌다.



한정현 동창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7. 1~ 2017. 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안영호(85) 1,000,000

이호정(87) 3,000,000

영어영문학과

성혜옥(70) 1,000,000

이명실(78) 1,000,000

불어불문학과

배혜화(77) 1,000,000

김태경(81) 1,000,000

배윤경(87) 3,000,000

독어독문학과

이정화(74) 1,000,000

손희정(87) 3,000,000

기독교학과

한은주(87) 3,000,000

사학과

박기옥(59입) 1,000,000

김점숙(87) 3,000,00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금지현(87) 1,000,000

윤경혜(87) 3,000,000

행정학과

박상금(87) 3,000,000

문화정보학과

손경애(87) 3,0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김미령(69) 1,000,000

김세영(87) 3,000,000

사회학과

강미영(87) 3,000,000

사회복지학과

김혜영(87) 3,000,000

심리학과

박성희(86) 1,000,000

엄혜정(86) 1,000,000

김혜원(87) 1,000,000

오승민(87) 3,000,000

경제학과

이정민(87) 3,000,00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한석희(71) 1,000,000

최진(87) 3,000,000

물리학과

김경자(68) 1,000,000

남상택(74) 1,000,000

최은영(87) 3,000,000

화학과

조혜성(87) 3,000,000

생명과학과

김용연(87) 3,000,00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조호경(87) 3,000,000

음악대학

피아노과

우숙영(87) 3,000,000

관현악과

최연수(87) 3,000,000

성악과

석정자(67) 1,000,000

이소연(87) 3,000,000

한국음악과

한은미(87) 3,000,000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박신숙(87) 3,000,000

조소과

주이향(87) 3,000,000

섬유예술과

박향숙(87) 3,000,000

생활미술과

김곡미(87) 3,000,000

장식미술과

제승모(87) 3,000,000

체육대학

체육학과

이영란(76) 1,000,000

무용과

이연수(87) 3,000,000

사범대학

교육학과

심기종(65) 1,000,000

윤순희(65) 1,000,000

김영주(71) 1,000,000

정대련(82) 2,000,000

양선희(87) 3,000,000

유아교육과

이순례(71) 300,000

장윤정(71) 1,000,000

임산희(81) 1,000,000

장태옥(87) 3,000,000

김양선(88) 1,000,000

유청옥(88) 1,000,000

박희경(89) 1,000,000

초등교육과

김명희(87) 3,000,000

교육공학과

김이주(71) 600,000

권미경(87) 3,000,000

특수교육과

최경식(75) 1,000,000

김은경(87) 3,000,000

영어교육과

유명순(87) 3,000,000

외국어교육과

전혜준(불어전공 87) 3,000,000

사회과교육과

정은주(87) 3,000,000

과학교육과

김선우(87) 3,000,000

수학교육과

신경희(77) 1,000,000

이영희(78) 1,000,000

79년 졸업자 일동 1,000,000

김난영(86) 1,500,000

김정미(87) 1,000,000

융합보건학과

인형덕(87) 3,000,000

법과대학

법학과

양정숙(87) 3,000,000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은경(87) 3,000,000

국제사무학과

고인미(87) 3,000,000

의과대학

의학과

조종남(75) 1,000,000

이종민(80) 1,000,000

임선영(82) 1,000,000

이창옥(87) 3,000,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현석경(87) 3,000,000

약학대학

약학과

문희(59) 2,000,000

김순영(62) 1,000,000

정준순(72) 1,000,000

이미애(79) 1,000,000

강혜영(87) 3,000,000

제약학과

유희원(87) 3,000,000

황경수(88) 1,000,000

생활환경대학

가정관리학과

김미양(87) 3,000,000

의류직물학과

이미숙(87) 3,000,000

식품영양학과

김광옥(75) 1,000,000

이혜원(83) 1,000,000

정조인(83) 1,000,000

석재민(87) 3,000,000

대학원

곽은아(88) 1,000,000

정책과학대학원

전혜성(08) 1,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 1~ 2017. 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약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영애(79) 300,000	성악과	안경숙(78) 300,000	약학과	
김성자(61) 300,000	정유선(02) 500,000	이혜자B(65) 300,000	민태희(70) 300,000	문은선(49) 300,000	
박미해(64) 300,000	심리학과	이영애(68) 300,000	송선희(78) 300,000	이정자(66) 300,000	
최경희(77) 300,000	김정애(76) 300,000	작곡과	손혜경(80) 500,000	임형순(73) 300,000	
영어영문학과		김옥자(67) 300,000	부은령(81) 300,000	정용희(75) 300,000	
정성희(69) 300,000		조형예술대학	김방희(85) 500,000	민명수(79) 500,000	
최선열(70) 300,000	통계학과	섬유예술과	유형심(90) 500,000	안소영(83) 500,000	
김남민(78) 300,000	유시내(96) 500,000	김성희(89) 300,000	융합보건학과	유별내(02) 500,000	
이해남(79) 300,000	물리학과	생활미술과		생활환경대학	
김민경(16) 500,000	이수영(98) 500,000	신수연(69) 300,000	법과대학	가정학과	
불어불문학과	화학과	장식미술과	법학과	이숙현(67) 300,000	
이원옥(68) 300,000	김정원(76) 300,000	김승연(88) 500,000	차명희(66) 500,000	식품영양학과	
김영혜(77) 300,000	생명과학과	체육대학	권성희(86) 500,000	박진자(71) 300,000	
배혜화(77) 300,000	김문자(65) 300,000	체육과	양옥희(90) 500,000	강종은(74) 300,000	
독어독문학과		박경실(78) 300,000	정영심(00) 500,000	김광옥(75) 300,000	
민용자(67) 300,000	공과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이숙경(68) 300,000	건축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국제학과	
임병희(74) 300,000	심미혜(09) 500,000	사지숙(55) 300,000	나민경(98) 500,000	최수안(06) 500,000	
사학과	음악대학	김신지(68) 300,000	조유진(09) 500,000	정책과학대학원	
임계순(67) 300,000	기악과	유아교육과	국제사무학과	전혜성(08) 500,000	
사회과학대학	최승현(63) 300,000	임형란(71) 300,000	이광희(74) 300,000	학과·연도 미상	
문화정보학과	이름미상(67) 300,000	교육공학과	의과대학	박인숙 300,000	
홍승진(65) 300,000	나효선(70) 300,000	김준희(67) 300,000	이용옥(60) 300,000		
사회복지학과	피아노과	영어교육과			
한인영(72) 300,000	우숙영(87) 500,000				
	송혜영(96) 5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7. 1~ 2017. 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유해일(64)	신언임(69)	조인숙(10)	류수인(50)	김춘삼(57)	문영혜(63)
국어국문학과	안정환(65)	유원화(69)		권덕연(53)	최인수(59)	박봉숙(63)
서정자(57)	유정자(65)	장종옥(70)	중어중문학과	김순자(55)	남윤선(60)	박해경(63)
김수희(58)	신효재(66)	정운현(정순자)(71)	안영호(85)	김승숙(55)	박재옥(60)	엄윤성(63)
한정숙(59)	정준선(66)	전신애(75)	강영매(86)	백형진(55)	최영희(60)	유행림(63)
김중자(60)	박영숙(67)	한순미(75)	김인효(16)	최일연(55)	홍애영(61)	양정자(64)
오명주(60)	우원자(68)	백영자(76)		김형석(56)	구훈모(62)	이명환(64)
권은영(62)	임완숙(68)	김청자(81)	영어영문학과	이인주(56)	이기영(62)	정해원(65)
전병숙(63)	최애자(68)	이름미상(85)	최정연(49)	곽경수(57)	김정매(63)	정혜주(65)

오경님(67)	김경숙(69)	커뮤니케이션	이숙자(73)	이은영(85)	오상혜(69)	체육대학
이영숙(68)	박명옥(69)	미디어학부	권오향(78)	조혜영(85)	이신호(72)	체육학과
이유경(68)	윤혜신(88)	조애진(66)	김명숙(80)	이주희(87)	강미연(74)	조성환(49)
김순희(70)		이정민(67)	이수현(00)	황정인(90)	박선경(77)	방봉세(51)
성혜옥(70)	사학과	김미령(69)		강주영(98)	박동미(79)	김정자(56)
고경원(71)	남상훈(60)	김인자(73)	물리학과	전유진(16)		이요식(57)
김수연(71)	이은주B(60)	석영인(77)	김경자(68)	서지은(17)	서양화과	이영옥(62)
김혜정(72)	김인숙(61)	사회학과	김영선(68)	정현주	양경옥(63)	고선혜(67)
박주희(75)	정민자(61)	장의순(62)	김순옥(74)	최윤성	이선희(67)	전성자(67)
백혜련(75)	김학자(62)	최용소(65)	남상택(74)		유용희(70)	이정자(68)
유의순(76)	남상훈(62)	유혜향(66)	이재화(75)	음악대학	김효정(77)	문규순(70)
이해남(79)	박기옥(59입)	정행자(66)	이미경(86)	기악과	신미선(85)	김은희(72)
박경애(83)	노수자(64)	고경진(69)	이은경(86)	황경현(63)	박신숙(87)	이영란(76)
김주희(92)	김재향(67)	손재영(88)	한미경(88)	양유순(68)		이미나(81)
정성민(96)	서정임(68)	이효원(69)	류승희(06)	조소과		허현미(89)
오승필(00)	오옥환(68)	윤명근(72)	화학과	피아노과	김정숙(71)	
김민선(16)	민병서(71)	문명재(77)	김정남(60)	정청자(64)	이혜경(78)	무용과
두가현(16)	정혜자(72)	오숙영(77)	김종은(60)	이귀란(90)	남은정(91)	김정수(70)
최수연(16)	정현주(76)	사회복지학과	김세명(62)	관현악과	장정아(91)	김금숙(76)
	김정미(80)	최태순(62)	김명화(64)	이순자(59)		손경순(77)
	김영완(81)	최재명(66)	양영자(65)	안진희(76)	서유예술과	사법대학
	이영희(88)	김일숙(67)	양수경(67)	이혜원(81)	김삼선(68)	교육학과
김송자(63)	사회과학대학	최수자(67)	위경옥(68)	나은주(95)	손정례(72)	정일례(50)
권남규(64)	정치외교학과	고순자(69)	이인희(70)	문선희(11)	남희정(85)	호재숙
윤용범(64)	김경숙(56)	한숙자(70)	안소영(73)	성악과	봉지희(85)	김금순(56)
정영자(64)	최명숙(57)	민경은(92)	배경화(74)	주영희(57)	이상미(88)	최영숙(56)
이계은(65)	박완규(66)	박경숙(57)	황복기(83)	남옥우(60)	생활미술과	이연숙(57)
최귀연(65)	최금자(66)	김태련(60)	생명과학과	석정자(67)	이민정(67)	권유봉(58)
성명숙(66)	우행자(69)	오봉림(61)	류우(60)	최혜인(90)	조창연(67)	권봉선(59)
엄선경(67)	김영숙(70)	황경숙(62)	정영애(60)	김연수(01)	김미자(70)	김은산(59)
이경혜(67)	조복선(70)	이름미상(63)	강래화(61)	김현나(02)	노용(72)	김춘심(59)
홍미자(68)	구혜정(71)	계명의(66)	김한중(61)	권미현(03)	이미숙(72)	이름미상(59)
한수옥(69)	황유정(85)	박순자(66)	이종원(61)	윤현정(05)	박선옥(73)	오춘란(61)
민혜경(71)	황원경(98)	한소연(81)	정은자(61)	작곡과	최일숙(85)	박원(62)
장혜경(73)	박소영(13)	한상은(84)	한승희(61)	임진(72)	남수정	백령자(63)
정광자(73)		경제학과	차영순(64)	진영미(75)		윤순희(65)
신덕영(75)	유샛별(07)	이유빈(15)	이혜순(65)	종교음악과	장식미술과	박경희(68)
황정일(85)	문화정보학과	양소혜(88)	이혜숙(67)	신영선(88)	박실(75)	박영자(68)
김영언(16)	유애저(65)	소비자학과	김용숙(75)	양수화(71)	곽미지(87)	박정수(68)
독어독문학과	최선희(65)	조은지(17)	임효진(07)	방명주(73)	신영선(88)	이재옥(68)
오영란(67)	황의자(67)	자연과학대학	조가현(09)	유미나(96)	권순임(91)	장예순(68)
박효순(69)	이주식(72)	수학과	김윤정(16)	최은희(81)	전희정(68)	전희정(68)
이금숙(69)	김이경(77)	윤연상(62)	박선희(85)	류정연(95)	황순자(69)	황순자(69)
이봉무(72)	조혜민(86)	장상(62)	김송희(85)	신주희(97)	김임순(70)	김임순(70)
이정화(74)	고영자(87)	송순기(64)	박선희(85)	도예과	김영주(71)	김영주(71)
기독교학과	양주희(05)	노현숙(71)	신계숙(85)	기숙희(01)	김여옥(74)	
김영화(65)	김경애(72)	김경애(72)	김송희(85)	이소담(16)	채문숙(74)	
김봉희(66)			박선희(85)	디자인학부	서성필(75)	
이정자(66)			신계숙(85)	조형예술대학	정대련(82)	
이혜재(66)			박선희(85)	동양화과	이진표(85)	

학과·연도 미상					
유아교육과	조연수(61)	경영대학	김원숙(57)	김영숙(67)	최민자(67)
이은화(59)	홍승인(61)	경영학과	김필한(57)	석귀덕(67)	이상미(88)
유근희(61)	강북기(63)	이영애(69)	정영주(57)	황혜자(67)	이은영(78회)
최영란(61)	강혜온(63)	경영출(72)	허인전(57)	박순(68)	김석득
류지후(63)	박옥련(65)	문인숙(81)	홍정옥(57)	박순례(68)	김순명
김갑희(71)	권순경(66)	서지희(85)	이름미상(57)	원사덕(68)	김시애
김귀연(71)	양인숙(66)		곽순덕(58)	조외희(68)	김영화
김복순(71)	최영자(66)	국제사무학과	문경희(58)	김덕길(69)	김정미
김신재(71)	성봉기(68)	고인미(87)	김은희(59)	김일희(69)	김지수
김영주(71)	김숙자(70)		문희(59)	박성숙(69)	김지윤
김영희(71)	박영주(70)	의과대학	민병옥(59)	이위영(69)	김태현
명은실(71)	노현숙(71)	의학과	신가균(59)	전경숙(69)	김호정
이기숙(71)	이연희(75)	박명숙(53)	오계원(59)	하영숙(69)	박윤정(55)
이상희(71)	심혜숙(87)	김순희(59)	윤혜숙(59)	문정수(70)	박영희(67)
이순례(71)	최연규(97)	차순자(60)	황동수(59)	배진숙(70)	박인숙
장윤정(71)		이종원(62)	고순환(60)	신옥희(70)	손경순
조한수(71)	과학교육과	우복희(63)	김보근(60)	정점선(70)	송경자
최명희(71)	이순자(67)	방희연(68)	김형례(60)	이름미상(70)	송지은
문경숙(74)	한옥희(67)	이규현(68)	문순이(60)	고명순(72)	신경희
임산희(81)	한태화(68)	손영애(70)	유경숙(60)	정준순(72)	신정숙
유청옥(88)	전희성(93)	주문희(70)	유선경(60)	강옥수(76)	유수현
박희경(89)	문영주	최금자(74)	이주화(60)	박민희(77)	이무경
서유현(96)		이경자(75)	장현숙(60)	이미애(79)	이수자
이선희(08)	수학교육과	이덕용(75)	정휘숙(60)	한숙영(79)	이정희
	문봉선(76)	이선자(75)	한영숙(60)	황미경(97)	이희구
초등교육과	신경희(77)	정순미(75)	황명순(60)	권진현(05)	장혜숙
고정자(64)	윤미영(79)	조종남(75)	고경희(61)	조정애(83)	채영원
김광자(65)	이미림(79)	황임령(76)	고화영(61)	이선희(85)	채혜숙
이행자(65)		김정혜(77)	김덕희(61)	황인덕(74)	김유경(90)
조을순(75)	융합보건학과	오혜숙(78)	김옥녀(61)	오용순(75)	이윤경(90)
조진영(77)	이주순(73)	이남희(79)	이남우(61)	김영미(79)	최유진(01)
	이선숙(74)		전숙희(61)		최정연
교육공학과	장은숙(74)	간호대학	정예경(61)	생활환경대학	최희숙
노정숙(74)	오명신(78)	간호학과	최경자(61)	대학원	황해자
손영신(77)	임찬희(78)	남상옥(62)	김순영(62)	가사·가정과	하영수(75)
하경옥(77)	고효선(79)	조혜숙(76)	김영순(62)	고순자(43)	남기신(83)
	곽소은(79)	김선애(80)	송미래(62)	정순희(53)	곽은아(88)
		임경희(80)	조수남(62)	김보열(54)	기타 이름미상 (37명)
특수교육과		최혜은(98)	차영화(63)	이병립(55)	교육대학원
박애영(75)	국어교육과		구신자(64)	이신덕(57)	국내 지회
	한지희(10)	약학대학	김경자(64)	김선영(59)	대구
영어교육과		약학과	김경자(64)	김추옥(60)	사회복지대학원
조성실(72)	법과대학	이름미상(48)	김송윤(64)	김혜자(60)	600,000원
최종숙(72)	법학과	윤명열(60)	김정경(64)	이수연(16)	순천
김화숙(76)		윤혜정(50)	백정자(64)	구자숙(61)	신학대학원
김경화(82)	유희숙(65)	이항구(50)	이정혜(64)	김영주(62)	660,000원
김연미(96)	양정자(66)	김경원(51)	정태연(64)	박창순(62)	김연자(가정 59)
	한지숙(67)	김순자(51)	홍경자(64)	박선원(63)	강초례(가정 63)
사회과교육과	윤혜숙(70)	이인숙(51)	윤정자(65)	박영혜(63)	조정자(국문 63)
김형경(56)	최양숙(70)	전예실(51)	김명자(66)	이영예(63)	조영숙(화학 67)
박정복(57)	박현주(99)	최귀파(51)	김화수(66)	김용자(64)	김경인(동양 74)
이영희(58)	정아영(11)	오춘환(55)	이강희(66)	예경혜(64)	홍선란(교육 74)
이선희(61)		고영수(57)	이름미상(65)	이름미상(65)	유종희(사학 75)
			강원자(67)	오매성(66)	고명선(영문 76)

박금희(물리 76) 최영자(사회 77) 김명석(작곡 79) 나연희(경영 79) 황경숙(체육 79) 서혜석(영문 81) 유숙영(법학 85) 윤지연(간호 85) 고선영(외교 86) 최정순(커미부 87) 신경화(조소 88) 홍기은(교공 88) 김수진(경영 91) 이유진(섬예 95)	뉴욕 (1,000달러) 1,100,000원	(300달러) 333,677원 도미용(약학 56) 김영채(영문 59) 유경주(교육 62) 김혜선(외교 69) 배영자(커미부 69) 이현숙(간호 69) 황은신(생미 70) 강순명(약학 71) 하현숙(법학 71) 변혜경(조소 73)	조미영(융합보건 79) 김경원(가관 81) 장명옥(영문 81) 이인옥(관현 84) 김태원(피아노 86) 이미애(성악 89) 김성숙(교공 92) 김복희 김(주)혜선 박정숙 서정주
전주 570,000원 차인자(영문 50) 전정희(가정 57) 이순례(수학 59) 김영원(피아노 61) 국혜원(사학 62) 조덕이(생명 63) 이주자(사교 67) 박숙희(교공 70) 안명옥(심리 70) 이영혜(의학 72) 기영석(국제사무 73) 손숙희(작곡 73) 오경안(법학 75) 정순임(식영 75) 이은경(화학 79) 이옥현(피아노 82) 최희윤(불문 85) 정향숙(사복 86) 강진아(중문 94)	뉴질랜드 320,000원	싱가포르 900,000원	오타와 300,000원
해외 지회 뉴델리 300,000원 김정미(교공 69) 윤해숙(커미부 71) 윤일혜(화학 85) 이은령(서양 86) 김연희(사복 87) 마정아(경제 87) 김수용(문정 92) 홍성주(법학 93) 오은영(사생 95) 김지연(중문 01) 정명화(수교 01)	독일 2016년분(225유로) 290,459원 2017년분(240유로) 309,760원	알래스카 (240달러) 263,717원 김연순(화학 59) 백도숙(영문 59) 김명순(간호 62) 김순명(교육 62) 이상현(교육 75) 이경희(식영 79) 천규운(사학 81) 김수연(신방 86)	일본 360,000원 정정자(커미부 65) 구덕자(의학 69) 정태영(생미 69) 최영숙(체육 69) 고정희(장미 74) 최순희(사학 78) 백선미(체육 80) 김덕희(도예 92) 이목미(유교 93) 성민영(수학 95) 류소진희(약학) 곽소천
시애틀 (300달러) 330,000원	애틀랜타 (1,000달러) 1,100,000원 성정순(체육 49) 오은경(교육 54) 김인자(영문 53입) 송신흥(의예 54입) 김난경(국문 59) 정정남(불문 61) 정호문(불문 62) 김아자(의학 63) 유옥희(피아노 63) 이혜선(피아노 64) 정제니(영문 64) 조성숙(가정 64) 강혜정(커미부 65) 김명은(조소 65) 여영희(사학 65) 김순희(법학 66) 장석란(서양 68) 계원옥(수학 69) 장윤심(식영 70) 조후자(의학 70) 유원희(약학 77) 김영례(심리 79) 김정희(약학 79)	자카르타 2016년분 230,000원 2017년분 230,000원	홍콩 14,200홍콩달러 방혜자(교육 66) 200홍콩달러 이명희(무용 68) 2,000홍콩달러 최명성(교공 76) 5,000홍콩달러 임혜경(커미부 79) 200홍콩달러 김성희(피아노 81) 200홍콩달러 임미도(관현 81) 200홍콩달러 정도경(사복 81) 5,000홍콩달러 문은명(조소 89) 200홍콩달러 한유미(보교 90) 200홍콩달러 이희연(관현 94) 200홍콩달러 조경진(영문 98) 200홍콩달러 김희선(섬예 01) 200홍콩달러 최문영(심리 07) 200홍콩달러 한혜린(법학 09) 200홍콩달러
신시내티			



선영아
0.1%의 나쁜 성분도
넣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해

0.1%의 나쁜 성분도
넣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해



60ml / 69,000원

컨슈머 리포트 1위* 동안탄력크림!

겔O, 피지O, 히말O 등 세계 유명 수입 브랜드를 제치고
당당히 영양크림 부문 1위를 차지한 아이소이 동안탄력크림!
고귀한 불가리안 로즈 오일과 25가지 천연유래 성분의 힘으로
보습, 탄력, 미백, 주름을 다 잡은 1위 효과를 직접 느껴보세요!

*2017 국민일보 컨슈머 리포트



국내 브랜드 최초
미국 EWG Verified™ 획득



독일 알러지테스트
Excellent 등급 획득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홀푸드 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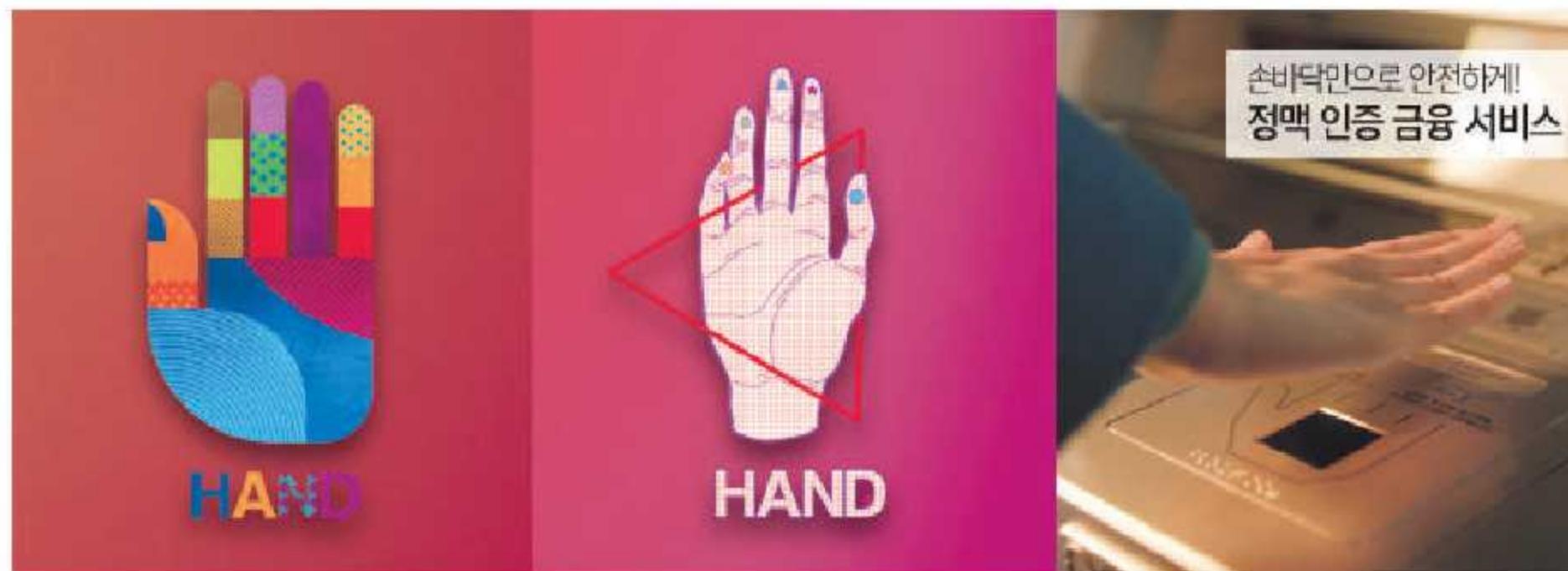


isoи 독일연구소만의
독보적인 블렌딩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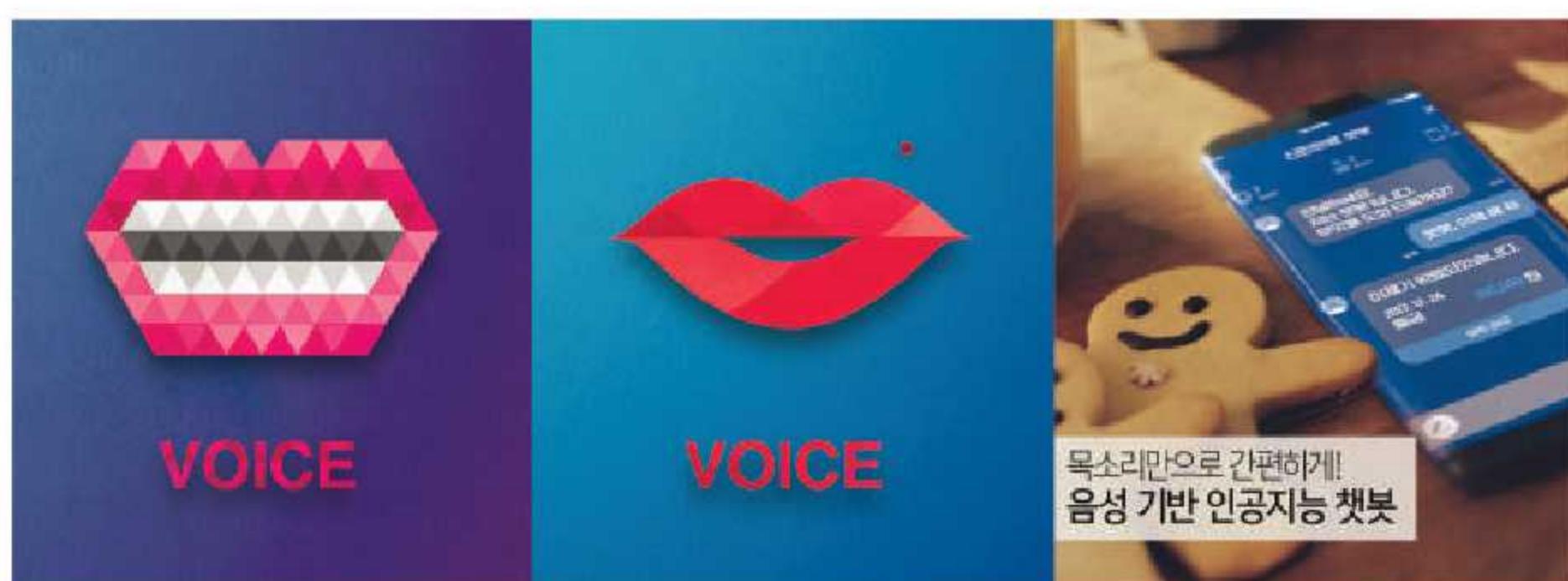
isoи
고객센터 ☎ 1800-9100

오늘의 은행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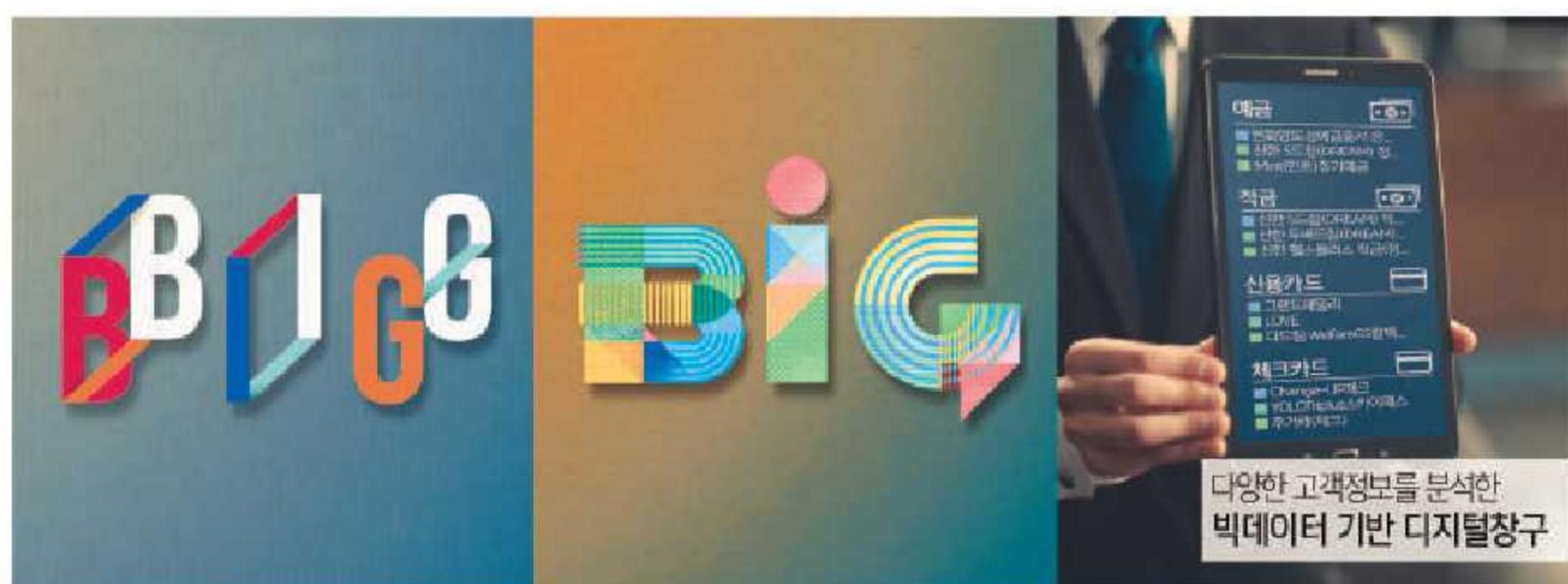
세상에겐 더 새로운 금융이지만
고객에겐 꼭 필요한 금융이 되는 것
이것이 신한의 NEXT금융입니다



지갑, 카드를 놓고 왔을 땐 손바닥만으로 출금하고



휴대폰을 터치할 필요없이 목소리만으로 이체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금융상품을 빅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알아보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7-2-1939호(2017. 12. 04 ~ 2018. 12. 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외기관 고객만족도 5개 전부문 1위 수상 국가고객만족도 1위 |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 글로벌 고객만족도 1위 |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1위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한국표준협회 주관) (글로벌경영협회 주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